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6. **12** Vol. 180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동명대학교 양승택 총장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부산인의 사랑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선비들의 음악, 영산회상을 아십니까?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_ 시작이 끝나고, 끝이 시작이다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 MBC 창사 47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그랜드 콘서트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바이올린
캐서린 레너드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2006. 12. 28(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협찬 BMW 공식딜러 동성 모터스 ForAD [주]포에드 | 종합광고대행사

■ 연주곡목

- 모차르트 -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 서곡 작품 366
-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라장조 작품 218
- 스크리아빈 - 교향곡 제4번 다장조 '법열의 시' 작품 54
- 라벨 - 볼레로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607-6101~4)
- www.bsulture.busan.kr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전지점
www.ticket365.co.kr

금 정 /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정통코미디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십 이 야

William Shakespeare's Twelfth Night

작/셰익스피어
연출/손기룡

2006.12. 8금▶9토
금요일 오후 7시 30분/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6136~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인터넷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티켓365 www.ticket365.co.kr

지정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남구/면학도서관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하단캠퍼스옆) · 부산진구/동보서적, 영광도서관 · 중구/남포문고

입장권: 일반 10,000원 청소년 5,000원

KOREA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집박/유경조 · 소금/김영민 · 대금/채수만, 김수일, 최재호 · 피리/박춘석, 최성교, 박순자 외)

가야금독주 '김병호 류' (가야금/윤경선 · 장구/송강수)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권미정, 진형준 · 해금/방병원 · 장구/신문범 · 좌고/최오성)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용우 · 해금/김민정 · 아쟁/최영훈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외)

설장구(설장구/전학수, 신문범, 이주현, 최오성)

※해설/백규진

● 12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 아울로스 리코더 앙상블 연주회



1991년 창단된 부산아울로스리코더앙상블은 그동안 10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 · 울산 · 경남 리코더페스티벌, 한국 바로크 챔버 앙상블 순회공연, 청소년 연주회, 한 · 일 교류연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바흐/푸가 사단조 BW.578 리틀 푸가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 8번 KV 213

텔레만/두 개의 알토 리코더를 위한 소나타

리코더와 함께 하는 클래식 발라드/5중주 '오버 더 레인보우', 3중주 '주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 2중주 '미뉴에트-연인을 위한 협주곡'

리코더와 함께 하는 국악/민요접속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도라지(아리랑)'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등
· 연주/김계정, 박성란, 김인영, 한경민, 송원영, 양선혜, 이예진, 김숙희, 박정은, 김나리, 차민영, 김선형(이상 리코더)
박성훈(색소폰), 차민영(피아노), 전지인(해금), 김명수(가야금), 김나리(장구)

●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일파가야금합주단 연주회



1996년 가야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창단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 새로운 창작곡 발표 및 새로운 연주법의 개발과 악기의 개량사업 등을 지향하면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프로그램

25현 가야금 3중주 '옹헤야' (편곡/백규진 · 연주/장경미, 이선혜, 이현아, 이수경, 박소원, 이고운, 최병길)

25현 가야금을 위한 가야금 3중주 '산조' (작곡/김희조 · 연주/권자경, 강은경, 최병길)

25현 가야금 4중주 'Lacomparsita' (편곡/곽재영)

아리랑 주제에 의한 18현, 25현 가야금 2중주(작곡/황의종 · 18현가야금/임영옥 · 25현가야금/권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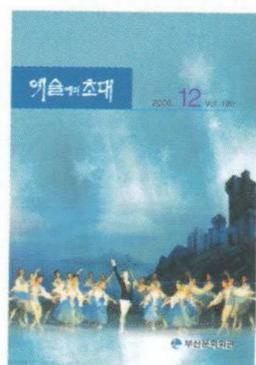
17현금을 위한 짧은산조 앙상블(작곡/백대웅 · 편곡/곽재영 · 연주/장혜숙, 김효정, 장경미, 한하경, 이고운, 권자경, 정란영, 김지혜, 고윤이, 최병길)

※해설/장명화(대구예술대 교수)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06 부산문화회관 12월 공연 일정
- 08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12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혼으로 빛어 내는 도자기 · 송중환
- 12 반갑습니다 | 동명대학교 양승택 총장
- 1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부산인의 사랑 · 한은주
- 18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선비들의 음악, 영산회상을 아십니까? · 홍희철
- 2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소멸 직전의 풍경-김광문의 그림 'Hermit Story' · 김형술
- 22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시작이 끝나고, 끝이 시작이다 · 김희진
- 24 연극 속으로 | '인형의 집'은 좁다 · 변미선
- 26 그곳에 가면 | 김해 추억의 민속박물관
- 28 우리는 문화 가족 | 풍물패 '어울마당'
- 30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오카리나4 · 박종근
- 32 이 사람 | 오랜만에 부산 무대 서는 김혜란 명창
- 33 문화가 화제 | 실내악 전문연주단체 프로뮤지카 챔버소사이어티 창단
- 34 공연화제 | 키에프 쉘브첸코 주역들과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
- 36 부산시립예술단 12월 공연관람 가이드
- 40 12월 프로그램 가이드
- 59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의 세계2 · 곽근수
- 60 새로 나온 음반
- 61 새로 나온 책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4 객석에서 | 정선희 춘향가 완창을 보면서 · 권기룡
-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6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11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 오는 12월 29일과 30일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이 키에프국립발레단의 세계적인 솔리스트와 함께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2 월 공연일정

전시실

- 제 8회 대한민국 서화예술대전-대 · 중전시실**
12월 1일(금)~12월 3일(일)
문의: 대한서화예술협회(973-9973, 011-9535-1843)
- 제 24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대 · 중전시실**
12월 5일(화)~12월 13일(수)
문의: 한국현대미술인협회(644-0005, 011-488-3375)
- 동아대학교 회화전공 제 39회 졸업작품전-대전시실**
12월 14일(목)~12월 20일(수)
문의: 동아대학교(240-1920, 011-575-8629)
- 동아대학교 공예학과 졸업작품전-중전시실**
12월 14일(목)~12월 20일(수)
문의: 동아대학교(240-1930, 016-577-8321)
- 아시아미술대전-대 · 중전시실**
12월 23일(토)~12월 26일(화)
문의: 윤호철(556-6271, 011-592-6990)
- (사)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 제 23회 회원전-대전시실**
12월 28일(목)~12월 30일(토)
문의: 이해성(635-1131, 011-579-113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fri
- 2 sat
- 3 sun
- 4 mon
 - 솔 오페라단 2006년 겨울, 사랑과 감동의 대서사시 오페라 '라보엠' 19:30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솔오페라단(622-5529)
- 5 tue
 - 솔 오페라단 2006년 겨울, 사랑과 감동의 대서사시 오페라 '라보엠' 19:30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솔오페라단(622-5529)
- 6 wed
 - 솔 오페라단 2006년 겨울, 사랑과 감동의 대서사시 오페라 '라보엠' 19:30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솔오페라단(622-5529)
- 7 thu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61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8 fri
- 9 sat
 - 2006 난타 16:00, 19:00
4만원 · 3만원/공연라이프(626-9494)
- 10 sun
 - 2006 난타 15:00, 18:00
4만원 · 3만원/공연라이프(626-9494)
- 11 mon
- 12 tue
 -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마당총판 '男 공쥐 vs 팔쥐' 10:30 균일 2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3 wed
 -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연 마당총판 '男 공쥐 vs 팔쥐' 10:3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4 thu
 -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0:3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006 송년음악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635-9081)
- 15 fri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아듀! 2006'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9)
- 16 sat
 - 이 솔리스트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임재우(334-5211, 010-3038-7191)
- 17 sun
 - 소프라노 신영옥 2006 송년&2007 신년 콘서트 'Love Duets' 18:00 9만9천원 ·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공연라이프(626-9494)
- 18 mon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 연주회 19:30 초대/부산문화(635-9081)
- 19 tue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2006 기억 속의 시간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20 wed
- 21 thu
 - 부산시립합창단 제 121회 정기연주회 '웰컴 크리스마스 & 굿바이 모차르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22 fri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9회 정기연주회 '2006 송년을 위한 가족사랑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 23 sat
- 24 sun
 - 뮤지컬 '하드락 카페' 15:00, 19:00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25 mon
 - 뮤지컬 '하드락 카페' 14:00, 18:00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26 tue
 - 부산성악아카데미 2006 송년 애창곡의 밤 19:30
1만원 · 5천원/안상철(949-6582, 016-9302-5271)
- 27 wed
- 28 thu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울산 교류음악회 부산MBC 창사 47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그랜드 콘서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29 fri
 - 러시아 3대 발레단 키에프 쉐브첸코 주역들과 함께 하는 '백조의 호수'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42, 607-6070)
- 30 sat
 - 러시아 3대 발레단 키에프 쉐브첸코 주역들과 함께 하는 '백조의 호수' 17:0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42, 607-6070)
- 31 sun

중극장

MEDIUM THEATER

- 1 **fri**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 실내악 페스티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011-597-6808, 442-1941)
- 2 **sat** 한얼정악연구소 제 11회 정기공연 시조창무극 '정가의 진수와 한국인의 멋' 19:00 1만원 · 5천원/정인경(632-4472, 011-870-8597)
- 3 **sun**
- 4 **mon**
- 5 **tue**
- 6 **wed**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십이야'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7 **thu**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십이야'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8 **fri**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십이야' 11:00
부산시립극단 특별 공연 '십이야' 19:30 부산시립극단(607-6136)
- 9 **sat** 부산시립극단 특별 공연 '십이야' 16:0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0 **sun**
- 11 **mon** 제 4회 이옥희 첼로 독주회 19:30
초대/이옥희(335-8915, 017-594-1321)
- 12 **tu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0: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마리나 앙상블 제 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상진(011-576-2897)
- 13 **wed**
- 14 **thu** 에코플룻콰이어 제 5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정은영(016-581-6960)
- 15 **fri** 테너 김용주 다섯번째 독창회 19:30
3만원 · 2만원/김용주(463-6602)
- 16 **sat** 부산바순앙상블 Fagottissimo(파곳티시모) 연주회 19:00
1만원 · 5천원/장정호(011-387-4390)
- 17 **sun** 2006 부산버숨새 '봄비처럼 세상을 어루만지다' 18:00
균일 1만원/박현호(751-3100, 011-880-7082)
- 18 **mon** 테너 방현호 귀국독창회 19:30
초대/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19 **tue** 한울 창단연주회 19:30
초대/김진희(010-9928-3733)
- 20 **wed** 오데사 소년소녀합창단 내한연주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SPA엔터테인먼트(744-3588)
- 21 **thu**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옥영호(011-9322-1805)
- 22 **fri**
- 23 **sat** 장영남의 모노드라마 '버자이너 모놀로그' 16:00, 19:30
4만5천원 · 3만5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24 **sun** 장영남의 모노드라마 '버자이너 모놀로그' 16:00, 19:30
4만5천원 · 3만5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25 **mon** 장영남의 모노드라마 '버자이너 모놀로그' 15:00, 18:30
4만5천원 · 3만5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26 **tue** 한국소년소녀정가단 제 3회 정기공연 '화개동 편지' 19:00
초대/문금자(019-559-6119)
- 27 **wed**
- 28 **thu** 부산레이디싱어즈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박귀옥(891-6486, 011-9329-6486)
- 29 **fri** CBS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19:30
초대/김경순(018-553-7855)
- 30 **sat**
- 31 **sun**

소극장

SMALL THEATER

- 1 **fri**
- 2 **sat** 토요일상설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3 **sun** 부산클리리넷콰이어 기획특집 '칸사이 바셋 혼 트리오
초청연주회' 17:00 초대/한상현(017-577-7850)
- 4 **mon**
- 5 **tue**
- 6 **wed**
- 7 **thu**
- 8 **fri**
- 9 **sat**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아울로스 리코더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0 **sun** 아르모니 플룻 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이현정(894-1050, 017-206-1050)
- 11 **mon**
- 12 **tue**
- 13 **wed**
- 14 **thu**
- 15 **fri**
- 16 **sat** 토요일상설무대 '일파가야금합주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7 **sun**
- 18 **mon** 영팍스 & 퍼커스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전영수(010-7309-8069)
- 19 **tue**
- 20 **wed**
- 21 **thu** 제 5회 하순봉 작곡발표회 '노래의 밤' 19:30
초대/하순봉(018-576-1633)
- 22 **fri** 문해정 피아노클래스연주회 19:00
무료/김주완(011-9334-0848)
- 23 **sat** 영아티스트들의 밤 16:00, 19:30
무료/신문정(244-1924, 017-544-1924)
- 24 **sun**
- 25 **mon**
- 26 **tue**
- 27 **wed**
- 28 **thu** 러브 바이올린 19:00
무료/이대성(010-2302-2432)
- 29 **fri**
- 30 **sat**
- 31 **sun**

부산시내 기타공연 12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fri** 가족뮤지컬 '꼬마마법사 해리'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 **sat**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4:00, 16:00 -대극장 국민뮤지컬(02-322-7117)
가족뮤지컬 '꼬마마법사 해리' 12:00, 14:00, 16:00 -소극장
- 3 **sun**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4:00, 16:00 -대극장 국민뮤지컬(02-322-7117)
가족뮤지컬 '꼬마마법사 해리' 12:00, 14:00, 16:00 -소극장
- 4 **mon** 월요일영화 '라디오스타'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5 **tue** 제 28회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정기연주회 -대극장
초대/고신대학교(990-2231)
- 6 **wed**
- 7 **thu**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8 **fri**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0:20, 11:4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9 **sat** 년별 퍼포먼스 '점프' 15:00, 19:00 -대극장 KNN(850-9250)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2:00, 14:00, 16:00 -소극장
- 10 **sun** 년별 퍼포먼스 '점프' 15:00, 19:00 -대극장 KNN(850-9250)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2:00, 14:00, 16:00 -소극장
- 11 **mon** 월요일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2 **tue** 2006 부산은행 송년음악회 19:30 -대극장
초대/부산은행(669-8872~3)
- 13 **wed**
- 14 **thu** 페다고지 제 4회 정기연주회 19:00 -소극장
초대/정숙전(016-725-6756)
- 15 **fri** 추가열 부산콘서트 20:00 -대극장 작은평화(761-3076)
부산사랑 창작곡의 밤 19:00 -소극장 류지원(011-864-9889)
- 16 **sat** 창작뮤지컬 '황금동을 누는 아이' 12:00, 14: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가람뮤지컬(557-4277)
- 17 **sun** 창작뮤지컬 '황금동을 누는 아이' 12:00, 14: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가람뮤지컬(557-4277)
- 18 **mon** 월요일영화 '타짜'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9 **tue** 한낮의 휴 콘서트 11: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부산어머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소극장 광영애(019-503-4576)
- 20 **wed** 로고현대무용단 2006 정기공연 19:00 -소극장
1만원 · 5천원/이상미(010-9868-0420)
- 21 **thu**
- 22 **fri** 산울림 데뷔 30주년 기념콘서트 20: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미운오리새끼 10:20, 11:40 -소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3 **sat** 산울림 데뷔 30주년 기념콘서트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미운오리새끼 12:00, 14:00, 16:00 -소극장
- 24 **sun** 양희은 데뷔 35주년 기념콘서트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미운오리새끼 12:00, 14:00, 16:00 -소극장
- 25 **mon** 양희은 데뷔 35주년 기념콘서트 18: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미운오리새끼 13:00, 15:00 -소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26 **tue**
- 27 **wed**
- 28 **thu**
- 29 **fri** 윤도현밴드 부산콘서트 'YB New Year's Greetings'
20:00 -대극장 7만원 · 6만원/시민회관(630-5200)
- 30 **sat** 윤도현밴드 부산콘서트 'YB New Year's Greetings'
19:00 -대극장 7만원 · 6만원/시민회관(630-5200)
- 31 **sun** 윤도현밴드 부산콘서트 'YB New Year's Greetings'
22:00 -대극장 7만원 · 6만원/시민회관(630-5200)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fri** 제 8회 춤사랑 정기공연 19:00 -대공연장 심미숙(010-4564-6615)
부산콘서바토리 제 5회 정기연주회 19:00 -소공연장 부산콘서바토리(501-3999)
- 2 **sat** 키에프 국립방송교향악단 갈라 콘서트 16:00 -대공연장 김영근(011-858-9434)
한새해운대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18:00 -소공연장 김민욱(011-871-0412)
- 3 **sun**
- 4 **mon** 연극 '삼류배우' 20: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주)코엔(611-8518)
- 5 **tue** 연극 '삼류배우' 20: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주)코엔(611-8518)
- 6 **wed** 연극 '삼류배우' 20:00 -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7 **thu** 연극 '삼류배우' 20:0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주)코엔(611-8518)
- 8 **fri** 송년감사음악회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 · 5천원/아지무스오페라단(1588-2528)
- 9 **sat** 캐릭터 뮤지컬 '통과 제리'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한울(1544-1718)
- 10 **sun** 캐릭터 뮤지컬 '통과 제리'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한울(1544-1718)
- 11 **mon** 소프라노 성정하와 함께 하는 나의 첫번째 음악회 19:30
-소공연장 초대/프로인트(521-5729)
- 12 **tue** 테너 윤석 독창회 19:00 -소공연장
균일 1만원/윤석(011-553-9834)
- 13 **wed** 사랑나눔음악회 19:30 -대공연장 문대진(011-9526-8929)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
- 14 **thu** 피아니스트 이수진 귀국독주회 19:30 -대공연장 김유진(019-322-2167)
11시 브런치음악회 11:00 -소공연장 앙상블 클라시어(506-6305)
- 15 **fri** 동이트리오의 밤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부산문화(633-8990)
- 16 **sat** 히트콰이어 제 2회 정기연주회 18:00 -대공연장 무료/박기범(010-5702-1225)
직장인밴드 'US(우리들)' 정기공연 17:30 -소공연장 김두한(017-572-7437)
- 17 **sun** 소프라노 김선정 독창회 19:0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8 **mon**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 제 12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양미향(011-9537-9303)
- 19 **tue** 부산예술중 어머니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정용욱(011-9393-8769)
- 20 **wed**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1 **thu** 브니엘예술중학교 졸업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브니엘예술중학교(582-7671)
- 22 **fri**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0:30, 11:40 -대공연장
제 3회 드림포에버 작은음악회 19:00 -소공연장 백현주(017-585-2052)
- 23 **sat**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2:00, 14:00, 16:00
-대공연장 2만5천원 · 1만5천원/공연기획 퍼보트(904-0825)
- 24 **sun**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2:00, 14:00, 16:00
-대공연장 2만5천원 · 1만5천원/공연기획 퍼보트(904-0825)
- 25 **mon**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3:00, 15:00 -대공연장
2만5천원 · 1만5천원/공연기획 퍼보트(904-0825)
- 26 **tue** 부산예고 동문음악회 19:00 -소공연장
민향원(011-9503-2887)
- 27 **wed**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8 **thu** 테너 박승녕 독창회 19:00 -대공연장 초대/박승녕(016-807-7719)
칸투스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소공연장 김지원(011-842-1121)
- 29 **fri** 소프라노 김성숙,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듀오콘서트 19:00
-소공연장 균일 1만원/김성숙(010-4334-8541)
- 30 **sat** 프라임 플루트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김정민(011-858-5226)
- 31 **sun**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2/9(토) 16:00, 19:00 12/10(일) 15:00, 18:00	2006 난타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10%	공연라이프 (626-9494)
	12/24(일) 15:00, 19:00 12/25(월) 14:00, 18:00	뮤지컬 하드락 카페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10%	레드슬리퍼 (622-3496)
	12/29(금) 19:30 12/30(일) 17:00	발레 백조의 호수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30% (B석 제외)	부산문화회관 (607-607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2/23(토) 16:00, 19:30 12/24(일) 16:00, 19:30 12/25(월) 15:00, 18:30	장영남의 버라이어티 모놀로그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10%	레드슬리퍼 (622-3496)
시민회관 대극장	12/9(토)-12/10(일) 15:00, 19:00	년버벌 퍼포먼스 점프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10%	KNN (850-925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2/4(월)-12/7(목) 20:00	연극 삼류배우	일반 20,000원 청소년 10,000원	10%	(주)코엔 (611-8518)
	12/22(금) 10:30, 11:40 12/23(토)-12/24(일) 12:00, 14:00, 16:00, 12/25(월) 13:00, 15:00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R석 25,000원 · S석 15,000원	20%	공연기획 퍼보프 (904-0825)
울속도 문화회관	12/14(목)-12/15(금) 10:30, 11:40, 12/16(토)-12/17(일) 13:00, 15:00				
KBS 부산홀	12/2(토) 19:30 12/3(일) 18:00	신승훈 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10%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7577-567)
	12/29(금) 20:00	DJ DOC 콘서트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12/31(일) 18:00, 22:00	이승철 2006 아듀콘서트	VIP 8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12/25(월) 18:30	SG워너비 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10%	ANCT (622-3496)
	12/25(월) 15:00, 19:00	웃찾사 콘서트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12/30(토) 19:00 12/31(일) 19:00, 23:30	김장훈 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31일 23:30 R석 88,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2/23(토) 19:00, 12/24(일) 15:00, 18:00, 21:30, 12/25(월) 15:00, 18:00, 12/26(화)-12/29(금) 20:00, 12/30(토) 16:00, 19:00, 12/31(일) 15:00, 18:00, 21:30, 1/1(월) 14:00, 17:00	뮤지컬 루나틱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레드슬리퍼 (622-3496)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11/25(토)-12/10(일), 12/20(금)-12/31(일) 평일 19:30, 토요일 16:00, 19:30, 일요일 15:00, 18:30(25일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연극 라이방	균일 20,000원		
동아대학교 석당홀	12/23(토)-1/1(일) 평일 20:00, 주말 · 공휴일 16:00, 19:00 (월요일 공연없음)	라이어 부산공연	R석 25,000원 · S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비보이전용극장 (구.삼성극장)	12/1(금)-12/31(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2006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균일 35,000원	10%	SKY WARK (442-6500)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혼으로 빚어 내는 도자기

송중환 · 기장도예협회장, 소름요 대표

문)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답) “흙”

문) “도자기를 구울 때는 어디서 굽습니까?”

답) “전자렌지요”

나의 열린 공간 작업실을 찾아온 어떤 녀석의 대답이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묻는다.

문)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답) “마음으로 만듭니다.”

문) “마음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답) “혼이 들어갑니다.”

문) “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 “역수로 비싼 보물이 됩니다.”

간혹 황당한 질문이 있긴 해도 어린이가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 꼬마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나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된다.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청소년들의 학교수업이 근년에 들어 현장체험학습으로 발전되면서 분야별로 제법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체제가 시행되면서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현장체험도 익숙해져 자리가 잡혀가는 듯 하다.

다양한 체험들은 농촌마을로 확대되면서 시멘트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의 넉넉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체험학습이란 눈으로 보는 학습, 머리로 외어두는 학습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체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술을 단순히 경험하고 배워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전문가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 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세계 도자 대국의 반열에 우뚝 섰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도자기 유학을 가는 사례를 볼 수 있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다. 우리는 도자문화를 대하는 마음자세가 외화 속의 한 장면같이 가볍게 즐기는 오락문화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일본의 경우는 도자문화를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도자문화를 좀더 진지한 마음자세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400년 전 당시만 해도 자기에 어두웠던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여 도자기 수탈은 물론, 사기장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조선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빼앗아 갔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조선의 흙마저 다량 운반하여 가기도 했다.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억압에 억눌려 자기를 구워주면서 비법까지 전수하여 주었던 조선의 사기장들은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국 땅에서 생을 마쳐야 했다. 지금은 그들의 14대, 15대 후손들이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도자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 9월 부산영상위원회의 안내로 일본의 영화감독 岡屋龍一씨와 조일방송사 편성본부장 森山造一씨 등 5명이 나의 작업장으로 방문하였다. 일본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 사기장들의 옛길을 거슬러 오면서 구상중인 작품 제작에 반영하려 했다.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한 젊은 사기장이 기력이 떨어진 노년에 일본을 탈출하여 꿈에 그리던 조선 땅으로 돌아와 그때의 옛길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애뜻한 사연이 담긴 작품이었다.

1996년 10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의 도자기 '철화백자용문항아리'가 64억원에 팔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실이 있는가 하면, 조선의 막사발이라 불리워지는 이도(井戶)다완은 2005년 KBS TV로 방영 되면서 1000억엔의 재화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조선자기의 우수함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값 또한 최고의 수준이다.

나의 작업장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사기장들이 왜국(日本)으로 끌려갔던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오솔길 따라 일본으로의 뱃길이 보이는 이곳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조선사기장연구회' 회원들의 정성으로 2004년 5월 '무명도공추모비'를 세우고 해마다 5월이면 관심 깊은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추모제를 지낸다. 2006년 11월 무명도공추모비를 새 단장하면서 해동문화회 회원들이 백여 그루의 철쭉나무와 오죽(烏竹)을 기념 식수했다. 내년 5월에는 철쭉꽃이 만발한 추모제가 될 것이다. 벌써 철쭉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세계적인 IT과학인재 양성

동명대학교 총장 양승택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방이라는 틀,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2003년 많은 관심 속에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양승택 총장이 12월로 총장 취임 3년을 맞는다.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총장 등을 역임하며 IT강국 한국을 이끌어온 수장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닌 양승택 총장은 고향 부산에서 세계적인 IT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3년을 바쁘게 보냈다.

동명대학교가 지식정보사회에 맞춰 설립한 IT 특성화대학인 만큼 그는 총장 부임 후 세계적 수준의 과학IT계 명사들을 잇따라 초청하여 ‘릴레이과학강연’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부산과학문화센터 공동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부산의 과학문화 창달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양승택 총장은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에 이어 지난 해 2005 APEC정상회의 IT전시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인들에게 IT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부산 ITU 텔레콤 아시아 2004대회에 참가한 동명대학교는 대학 자체개발 3D게임 등을 세계 대학 사상 처음으로 독립부스로 선보였고 태국 TOT(우리나라의 KT에 해당)에 게임교육과정을 수출하기도 했다. 양승택 총장은 ‘실험실에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술’로 대학-기업-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산학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



고 있다. 대기업 주문형 기술 8건을 수주 받아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사장될 뻔 했던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도록 부산의 중소기업에 상용화하게 하여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일반대학체제로 전환한 동명대학교는 모든 전임교수가 교수 1명당 신입생 10명의 입학 이후 취업 및 진로지도 등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TU(영문 교명 이니셜) 멘토링' 제도를 전국 대학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TU 멘토링 제도는 총장으로 부임한 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아이디어 없어 고민하던 양승택 총장이 착안해낸 것이다. 학생별 능력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 저학년생이라도 고학년 과목을 수강하도록 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면제하는 '학년과과제도'를 도입, 실질적인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성이나 성취도를 고려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 2의 양승택을 꿈꾸는 제자, 후배들에게 그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손목시계를 곧잘 분해했다는 그는 어떤 일이든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해결하면 더 큰 보람이 생긴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이공계열 사람들일 수록 자칫 감성이 무뎠어지고 생각이 한 곳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걱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권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 명사초청 릴레이 과학강연 외에도 소외 청소년을 찾아가는 천문관측봉사 활동 등을 지속하면서 순차적으로 부산 과학리더스 아카데미, 과학문화지수 개발, 국제과학문화교류 등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젊은날의 열정으로 미국 유학 중 바이올린과 사진에 심취했던 그는 요즘 학생들과 정서적인 소통을 위해 최신 곡들을 함께 즐기고 있다.

“난 부산 사람이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산다는 생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신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를 가꾸어 간다면 우리의 무대는 부산이 아니라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부산과 부산 사람들은 IT강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부산사람들의 삶-사랑을 담아낸 무용극

부산인의 사랑

한은주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독일의 안무가 피나 바우쉬는 여러 국가의 유명도시를 작품화하였다. Palamo, Masuruca, Vitoria…….

피나바우쉬는 2006년 LG의 후원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Rough cut' 를 발표하였다. 상당한 지원금으로 조성된 이번 공연은 굵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특성과 문화를 포출, 전달하였다. 어쨌든 세계적인 무용가의 손에 의해 한국을 소재로 제작된 무용을 본다는 큰 기쁨으로 많은 기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다.

피나 바우쉬는 부페탈이라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무용단의 안무가이다. 하지만 그녀가 세계적인 안무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재능과 열정, 그리고 전 시민의 사랑과 미래지향적 생각으로 시, 국가의 예술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이나 무용 공연예술을 보면, 보기전엔 그 규모를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Victoria의 경우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작품이 시작된다. 그리고 무대전체가 언덕, 꽃밭, 수영장, 숲, 절벽 등 작품에 따른 과감한 극장개조를 하고 있다. 그러한 큰 규모의 예술공연은 예술가나 관객, 작품 모두에게 즐겁고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감흥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부산사람이다. 부산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도 많다. 내가 여기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일하고 살면서 느낀 것들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작품화하고 싶었다. 나는 부산을 사랑이 많은 도시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부산인의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여러사람의 생각과 시점들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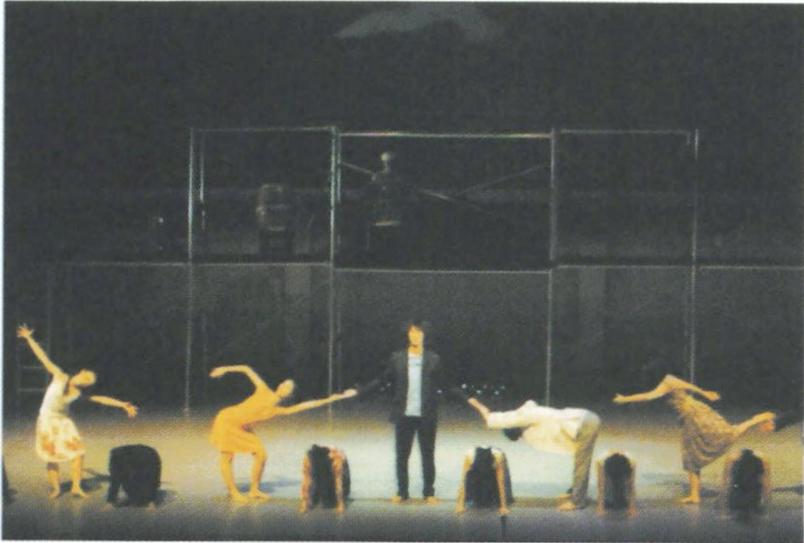
부산은 나에게 많은 사랑과 꿈과 안식처를 준다. 나에게 있어 부산은 고향이다. 정다운 고향은 모든이의 어머니품 같이 아늑한 곳이지 않을까. 특히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인다. 큰 목소리에 투박한 말투를 쓰는 부산사람들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우리네 이웃들이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부산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싶었다. 질편한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희망의 부산정서를... 정이 많고 순수하며, 저력을 가진 부산사람, 저 넓은 푸른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또 거친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부산은 저력을 가진 도시이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 많은 시련도 있었다. 왜구의 잦은 침략도 있고 6·25 전쟁당시 임시 수도로서 국운을 지키는 모태같은 도시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산사람들은 개방적이다. 국제 항구 도시로서 국제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터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산은 슬픈 애환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과 피난시절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시던 우리 어머님들, 가족을 위해 힘든 노동을 하면서 지쳐 잠드시는 아버님들, 어려웠던 시절 어린나이에도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착하게 자라던 우리세대 여러분들, 먹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 평! 소리와 함께 뽀얀 연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인정많은 뽕튀기 아저씨, 힘든 생활에서도 꿈과 낭만을 간직했었다. 지금은 모두 활기찬 부산의 중심으로 변했지만 부산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 많다. 영도다리, 자갈치시장, 영주동 판자촌, 연안부두...

전쟁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피난온 사람들의 애뜻한 사연, 먹고 살기위해 힘든 노동 마다하지 않던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에서 부대끼며 살았을까? 눈물과 한이 맺힌 힘든 세월을 그렇게 거칠게 살아 왔지만 정 많고 마음 따뜻한 부드러운 부산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은가. 넓은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라 마음이 넓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활기에 차있다. 난 그런 부산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산을 사랑한다. 항상 마음 한곳에 자리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부산인의 사랑'을 기획하게 되지 않았나 한다.

'부산인의 사랑'을 기획하고 부산의 여러 곳을 참 많이 다녀봤다. 옛 정취가 묻어 나는 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다. 어쨌든 나에게도 그러한 정서들이 저 뿌리 깊은 곳에 슬픔과 아름다움으



2005년 10월 무대에 오른 '부산인의 사랑'은 질편한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무용극이다.

로 남아있다. 그래서 '부산인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이면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작품을 뜨겁게 뛰는 가슴으로 준비하였다. 오랜 기억 저편에 있던 나의 어린 시절이고 추억이었기에, 어떨때 뛰는 가슴이 멈출 것 같아, 또는 작업하며 뜨거워진 가슴과 머리를 식히기 위해 집앞 맥주집에도 참 많이 들렀던 기억이 난다.

친정 어머니를 부추겨 옛날 노래를 들려달란다. 하도 노래를 잘부르셔서 이번 공연무대에 서서 하자고 하니 "아이고! 망령 났다!"하신다. 그때 나온 노래들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 곧세어라 금순아 등등이다.

그리고 마침 부산시립미술관에서의 부산 발전사 전시회라든가, 예술부산에 실렸던 옛 부산의 사진들, 그림, 이야기, 노래, 회상 등 작품의 소재들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모았다. 그렇게 수집한 소재들을 무용수에게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또 그들이 아는 부산을 표현하게끔 하였다.

그래서 나온 소재들이 바다, 갈매기, 영도다리, 광안대교, 자갈치시장 등이다. 이번 공연은 대중적 예술성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연극적 요소, 인성 사용, 춤, 국악 연주의 총괄 표현으로 무용극(Tanz Theater)형식을 취했다. 부산의 애환과 정열이 잘 표현될 수 있었던 우리 국악의 해금과 모듬북은 전지인, 최정민님이 직접 연주하였고, 부산의 소리-미포파도, 개울가, 귀뚜라미 소리는 동료이자 주역 무용수였던 곽선영 선생님이 현장 녹음을 위하여 새벽 3~4시까지 함께 하여 그러한 나의 작업을 적극 지지하여 주었다. 그렇게 '부산인의 사랑'은 참 재미있고 즐겁게 했던 작업이었다.

'부산인의 사랑'은 2005년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과 박수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하지만 이 작품은 상당한 부분 보완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전문가와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부산인의 사랑'은 '작업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무용작품이 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사랑과 꿈의 안식처 부산을 춤으로 풀어낸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한 은 주 교수



“부산사람은 거칠지만 개성이 있습니다. 무용이 작가의 개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장르인 만큼 부산과 부산사람들은 좋은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무용극 ‘부산인의 사랑-터’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받은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한은주 교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 품에서 자란 무용인으로 기획한 ‘부산인의 사랑-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무용시간에 무용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무용공부를 하게 된 한은주 교수는 뛰어난 무용수를 꿈꾸던

촉망받는 춤꾼이었다. 대학 진학 중 부산 KBS 무용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졸업 후 무용단 소-
□ 창단멤버로 활동했지만 잦은 어깨 탈골로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봐요. 어깨 때문에 힘겨워 하면서도 그때는 무용수의 길이 내 길인줄만 알았는데 이젠 안무가로 예술과 사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무대에서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1988년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독여자실업고등학교에서 3년간 무용교사로 재직하던 중 독일 유학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한 한은주 교수는 1991년 독일로 건너가 국제적인 현대무용단 Urania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면서 쾰른 체육대학교 음악 무용교육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독일정착을 생각할 무렵 1997년 모교인 경성대학교 교수 제의를 받고 귀국한 그는 모교에서 요즘 후배, 제자들과 함께 춤추는 재미에 빠져 산다. 한은주 교수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항상 춤꾼으로서의 개성을 잃지 말라고 독려해 왔다.

2006년 무용학과 학과장을 맡아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지만 틈틈히 ‘부산인의 사랑’ 보완 작업을 해왔다. 2007년 연구교수로 1년간 독일에 머무를 예정인 한은주 교수는 독일에서 고향 부산을 그리며 그만의 개성으로 새로운 ‘부산인의 사랑’을 만들어 보고 싶다.

선비들의 음악, 영산회상을 아십니까?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얼마 전 부산에서는 감상하기가 쉽지않은 연주회가 있었다. 우리음악의 한 장르인 정악(正樂) 중 영산회상(靈山會相) 공연이 그것이다. 서울에서 온 정농악회의 연주였는데, 제법 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다. 이 곡의 특징은 매우 느리다는 것인데 얼마나 느리냐하면 연주하는 중에 느린박을 헤아리다가 악보를 잊어버리기가 일쑤일 만큼 템포가 느리다. 9개의 소곡으로 이루어진 이 영산회상이라는 곡은 전체 연주시간이 45분 남짓 되는 긴 곡인데 우리나라 정악곡 중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왕실과 선비층이 즐기던 정악(正樂)이라는 장르와 일반 서민사이에서 즐겨 연주되던 민속악(民俗樂)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나라의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음악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정악에서는 무색, 무취, 무감각, 무감정 즉,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반면 민속악은 정악의 느낌과는 정 반대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비통한 가락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인간 본연의 감정인 희노애락(喜怒哀樂)이 함께 묻어나오는 음악이 바로 민속악이다.

이날 영산회상 연주회에 사전 지식없이 입장한 몇몇의 관객들은 이 곡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지 곡이 중반부도 안 나갔는데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공연 중간에 자리를 뜨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었다. 세상에 이렇게 숨 막힐 것 같이 감정이 절제되고, 느리고, 엄숙하기까지 한 음악을 맨 정신으로 그것도,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이 감상하기에는 인내력도 인내력이지만, 대단한 정신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감상하기가 쉽지 않다.

영산회상이라는 곡의 특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희노애락을 찾을 수 없는 음악이다. 극도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감성이 절제된 음악이 바로 정악, 영산회상이다. 그런데 왜 우리선조들은 이렇게 부담가는 음악을 즐겼을까? 성격이 이상해서일까? 그냥 취향이 그랬을까? 아니면, 마냥 느린 음악을 좋아했을까? 아니다. 공자의 유교사상에 의해 빠른 음악은 선비들의 금기사항이었고, 당시의 음악은 지금과 같이 들려주는 음악이라기보다 학문을 연마하는 선비자신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음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이 빠를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느린음악이 더욱 자기연마, 수련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요즘같이 빠르고 감정적인 음악에 청각의 주파수가 맞춰져있는 현대인들이 옛날 왕실의 위엄과 운치가 녹아있는 음악들을 감상한다는 게 어찌하면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빠르고 감성적인 음악만이 마냥 좋은 음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정악에서 무슨 감미로움이나 사랑을 노래한 애뜻한 선율이나 환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정악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평소 바쁘고 정신없이 살던 자신을 잠깐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한 선율을 한 선율을 음미하듯 감상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

다. 이렇게 철학적이고 깊이있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지만 암기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정악의 배경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감상하다보면 대부분 5분도 되지않아 졸거나 지겨워한다. 이렇게 수준높은 음악을 이해 못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악에는 가곡이나 시조가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기악과 성악의 차이일 뿐 느리긴 매 한가지다.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쇯구를 “동차----아----양----이이----바---아-----르 -----가---았---느-----나아--”

이렇게 느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느리게 부르는데, 이런 음악을 어떻게 요즘의 음악과 서양음악에 귀가 젖은 사람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겠는가? 특히 외국인들이 이런 음악을 들으면 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감이라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한다. 물론 너무 감탄한 나머지 한국을 새롭게 보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놀라워한다면 우리전통음악, 전통문화 전체가 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 세조임금이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산회상은 원래 성악곡이었는데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악곡으로만 연주되어 전해지고 있다. 정권을 차지하기위해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고 불교를 적극 옹호한 임금이 되어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중 이토록 느리고 우아하고 절제미가 넘치는 음악은 세계에서 찾기 어렵다.

영산회상을 비롯한 우리의 정악곡들의 또 다른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독주도 되고 중주도 되고 합주도 된다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따로 떼 내어 독주로, 중주로 연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영산회상은 독주로, 중주로, 합주로 연주가 모두 가능하며 감상할 때 역시 독주, 중주, 합주의 묘미를 제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상용으로도 아주 새로운 매력을 가진 것이 우리의 정악이라 할 수 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다. 따스한 초겨울의 햇살을 쬐며 방안에서, 서재에서, 혹은 차안에서 여유있고 운치있는 풍류음악, 영산회상을 감상해보자. 그리고 정악같이 느리게,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 짓자. 영산회상을 음미하며 2007년을 계획하는 것도 꽤 운치있을 것 같다.



느리면서도 우아하고 절제미가 넘치는 '영산회상' (사진은 지난 10월 16일 부산에서 열렸던 정농악회 연주회)

소멸 직전의 풍경

- 김광문의 그림〈Hermit Story〉

김형술 · 시인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잘있거라, 째왔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요절한 기형도 시인의 시 〈빈집〉의 앞부분이다.

사람이 버린, 사람이 살지 않아 잊혀져버린 빈 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쇠붙이들이다. 크고 작은 문들의 경첩, 문고리, 쇠로 만들어진 갖가지 생활의 도구며 장식들은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의 부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 붉게 녹슬어간다. 그깟 쇠붙이들에게 무슨 마음이며 영혼이 있을 것이냐, 라고 사람들은 치부하지만 존재도 영혼도 없는 그것들이 사람의 온기와 체취의 부재에 관하여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건 이상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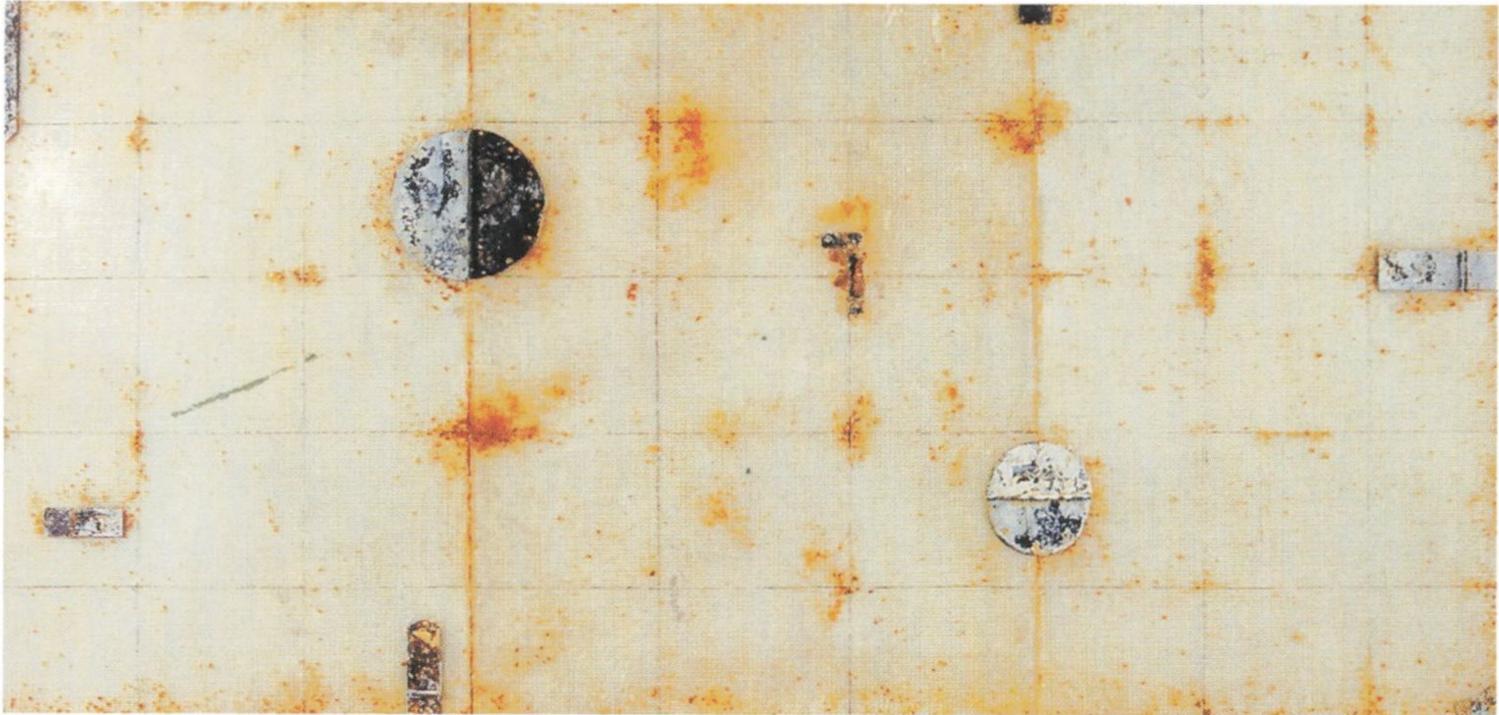
인간의 삶에 요긴하게 사용 당하던 일상의 시간들은 어찌면 그들에게 힘겨운 노동의 시간일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쇠붙이들은 그런 시간들의 상실을 슬퍼하기라도 하는 듯 녹슬어가다 마침내 붉은 녹물, 아니 어찌면 눈물로 벽이며 문설주를 얼룩지게 만든다. 그런 얼룩들은 그들이 가졌던 시간들에 관한 내밀한 증거이자 기록이며 잊혀져가는 자신들의 존재에 관한 희미한 흔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붉게 번지는 녹물의 얼룩과 함께 그들은 은둔의 시간 속으로 잠적해가는 중이다.

빈집 여기저기에 무늬처럼 수놓인 녹물과 얼룩들에서 깊은 적막과 고요의 기운을 감지하는 일은 쓸쓸하다. 녹슬어가는 쇠붙이들의 형상은 어찌면 인간의 시간과도 다르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욕망을 잠재운 후 홀로 깊어가는 것들은 설명하기 힘든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김광문의 그림 〈Hermit story〉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구체화한 것이라 여겨진다. 화폭 위에 자연스럽게 배치된 경첩들, 잠금장치 따위 쇠붙이들은 녹슬어 이제 쓸모를 다한 물건들이다. 그것들은 마치 가지런하게 구획된 시간의 눈금같은 선들 위에 여기저기에 놓여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된 그 시간의 눈금들은 쇠붙이들에게서 비롯된 녹물로 군데군데 얼룩져있는데 그 얼룩은 어찌면 시간의 결이자 무늬이기도 할 것이다. 쇠붙이들이 가져온 시간, 쇠붙이와 함께 한 사람들이 지나온 희로애락의 궤적이 남긴 얼룩들.

화가 김광문이 버려지거나 잊혀져가는 혹은 잊혀진 것들을 굳이 화폭 위로 불러내어 재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사소한 것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기억하고자 함일까. 아니면 그런 사소



김광문의 그림 〈Hermit story〉 170 x 83cm, mixed media on canvas.

한 것들의 녹슬어 잊혀져가는 과정을 통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의 시간을 은유하고자 했던 것일까.

잊혀진다거나 세간의 모든 시선들로부터 잊혀지고 싶다는 욕망은 곧 은둔의 시간 속으로의 잠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현실도피로서의 은둔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한 채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세상의 큰 의미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발견하고자 하는 다짐으로서의 은둔일 것이다. 그런 은둔의 시간들이 비로소 사소하고 보잘 것 없다고 여겨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의 아름다움과 존재의미를 되찾아 주었지 않았을까.

녹슬고 또 녹슬다 마침내 한 줌 재같은 가루로 흩어져버릴 것들의 힘겨운 존재증명, 혹은 소멸 전의 아득한 풍경같은 이 한 폭의 그림을 험사리 지나칠 수 없는 까닭은 정확하게 규정되고 구획된 시간 위를 걷는 인간의 풍경과 닮아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멸과 탄생의 순환 속 그 어떤 지점, 소멸 후에야 가능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멈춘 듯한 풍경을 이 그림에서 발견한다.

“잘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라고 일찍이 기형도 시인이 노래했던 그 순간들을.



시작이 끝나고, 끝이 시작이다

김희진 · 영화감독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희망으로의 전환이 있는 해피 엔딩의 결말이라 할 순 없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행복할걸요 라는 모호한 영화적 완결이 아니라서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영화처럼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올 해의 성과 중 하나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단지 소비재가 아니라 교육 매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족한 예산에 첫 시도가 가지는 시행착오들이 영화제 주체들에겐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제 필요한 일을 시작했다는 긍정적 사고로 다음 영화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십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양에서부터 중심지역을 해운대로 이전하며 참가자들에게 다른 면모를 보였고, 아시아 필름마켓의 첫 개최나 디지털 시네마에 대한 집중 조명 등 영화제의 미래 과제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닷가 중심의 행사는 협찬사들에게 홍보 마케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내년에는 많은 호응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영화제의 성공 여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아직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점차 나아져 가고 있어 보입니다. 첫 단추에서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세심하게 갈무리하는 체계를 잘 갖추어 모두에게 뜻 깊은 행사로 지속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부산에서의 영화 제작은 큰 성과를 낸 작품은 없었던 한 해였다고 보아집니다. 박지원 감독의 <그녀의 서른 번째 생일>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것이 나름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이명훈 감독이 학생임에도 <슈퍼 따릉이>라는 장편을 촬영해 낸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운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언니>가 동의시네마펀드 지원작으로 선정된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아쉽게도 촬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정 중단한 박준범 감독의 디지털 장편 <도다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고, 이번 겨울에 촬영하는 전수일 감독의 탄광촌 이야기는 사고 없이 촬영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작품으로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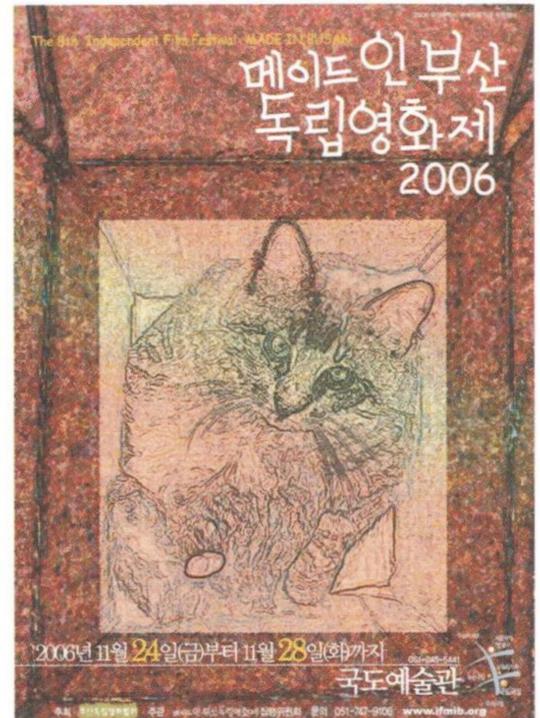
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지원은 매년 작품 수가 증가하더니 올해는 40편이 넘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촬영 현장이나 촬영 안내 게시물을 접할 수 있는 한 해였는데, 영상위원회의 역량도 커져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로케이션 유치가 요식업이나 숙박업 정도에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인력의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영상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내년은 좀 더 많은 노력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올 초 신상욱 감독의 타계는 한국 영화계 전체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오랫동안 영화 교육에 종사해 오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 아쉬움을 켜셨습니다. 경성대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시면서 부산의 영화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신 주윤탁 교수의 타계는 직접 교육을 받은 후학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부산 영화계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분이 경험하신 영화의 산 역사를 일일이 기록하거나 듣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이 안타깝습니다. 70~80년대 영화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보낸 그분의 경험과 부산의 영화 문화 발전을 위해 해 오신 활동들, 특히 평론 문화에 대한 그분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부산이 영화 도시로 굳건히 서기 위해선 역시 산업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산의 영화사가 주축이 된 상업영화들이 필요한데 올해 진행해오던 필름 나루의 해양수사드라마 프로젝트나 레알 제니스의 장편영화 <연어>의 제작 연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좀더 준비하여 내년에 실패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으나 올해 시작되어 좀 더 희망차게 내년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메이드 인 부산' 영화제를 끝으로 올해 한 해의 영화 행사는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이 탈바꿈한 국도예술관도 내년에 관객들이 너 많아지길 바라고 올해 마무리 못한 작품 제작들은 내년엔 꼭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거나, 기획을 준비하거나, 투자처를 마련하거나, 오늘도 새로운 영화를 찾아 기웃거리거나 영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 자신의 길을 가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있길 기원합니다.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도예술관에서 개최된 '메이드 인 부산 독립영화제 2006'.

인형의 집은 좁다

- 〈인형의 집〉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노라] 저는 당신이 그자의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이 사건을 세상에 공포하구로’ 하고 말하실 줄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사람 앞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나서서는, 자기 잘못이었다고 말하실 줄로 깊이 믿었었지요.

[헬메르] 노라!

[노라] 저는 그런 희생을 당신에게 절대로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애타게 기다리던 기적이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신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저는 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예요.

[헬메르] 당신을 위해서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꺼이 일할 거요. 당신을 위해서는 괴로움도 가난도 참을 거요. 노라,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희생시키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노라] 몇 백만의 여자는 그것을 해왔어요!

명예와 사랑, 해묵은 남녀간의 딜레마이다. 남자는 사랑보다 명예를 추구하고, 여자는 명예보다 사랑을 추구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방식의 문제다. 자기 남자의 명예에 무임승차하려는 여자도 있고, 남편이나 자식의 명예에 베풀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여자 등 아주 다양한 여자들도 많다. 자식이 성적에 뒤지자 동시에 자신이 명예를 실추당하고 자살하는 여인의 시대이니까 말이다.

1879년 헨릭 입센이 쓴 〈인형의 집〉에서 노라는 그 시대 대부분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여성규범에 맞게 길들여진 채 살아온 여자이다. 그녀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녀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이다. 남편의 명예만을 사랑하며 그에 안주하는 속물스런 여자는 결코 아니다. 단지 그녀의 실수라면, 당시의 여성에 대한 관습적 테두리 안에서 사랑의 실체를 착각했던 것이다. 인생에서 영혼을 자극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좌절의 극복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 감화일 것이다. 노라에게도 그녀의 성장을 이끄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친구, 린데 부인이다. 입센이 당시 이 작품으로 여성해방이라는 각성과 더불어 주제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의 위선에 반항해서, 요구되는 인간형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결정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노라의 행동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노라의 이러한 마지막 행동보다 더 재미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티네 린데 부인의 존재도 엿볼 수 있다.

노라의 친구, 크리스티네는 노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노라가 자신을 끄찍이 사랑해주는 남편과 그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동안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사랑하던 연인을 버리고 부유한 남

자와 결혼을 했고, 결국 그 남편의 죽음과 더불어 파경을 맞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노라가 과거에 병환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남편 몰래 빚을 내는 과정에서 문서위조를 하고, 이로 인해 은행장인 남편이 곤경에 처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크리스티네는 그 채권자에게 청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노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그 채권자는 바로 크리스티네의 과거 연인이었다. 크리스티네가 악덕 채권자인 옛 연인에게 청혼한 이유는 빛나간 사랑과 결혼에 따른 과오를 청산하고, 자신으로 인해 비뚤어질 수 밖에 없



1879년 헨릭 입센이 쓴 <인형의 집>에서 노라는 그 시대 대부분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여성규범에 맞게 길들여진 채 살아온 여자이다.(사진은 가마골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작으로 선보인 '노라, 인형의 집')

었던 연인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면서 그를 선량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라가 마지막에서야 자신의 실체를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디디며 가정을 떠나는 반면, 크리스티네는 이 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서 가정을 구축한다. 노라의 긍정적 미래형인 것이다.

반면 노라의 부정적 미래형이 있다. 입센이 2년 뒤에 <인형의 집> 후편으로 쓴 <유령>에서의 알빙 부인이다. 입센은 자신의 작품들을 개별적인 작품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봐달라고 스스로 당부하고 있다. <유령>은 물론 다른 작품이지만, <인형의 집>에서 노라가 집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위선적인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경우의 종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형의 집>은 사실주의극의 이정표를 세우며, <유령>과 더불어 사회문제를 다룬 사실주의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과장이나 꾸밈의 극적요소를 제거하고, 해피엔드나 권선징악 식의 해결책을 유도하지 않고 문제제시형의 현대적 극작기법을 리드하고 있다. 또한 과학과 실증주의적 사상에 의한 사실주의 작품을 쓰던 졸라의 영향에 힘입어 유전과 환경이라는 요소가 입센의 작품에 깊게 깔려있다. <인형의 집>에서는 아버지를 닮은 노라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낭비가일 수밖에 없고, 악덕 채권자에게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선량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유령>에서는 바람둥이 남편의 기질이 아들에게 유전되고, 또한 남편의 성병이 아들의 선천적 지병을 만들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만다. 남편에 의한 사생아 레지네는 부모의 방탕함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마저 그들과 똑같이 반복하려 한다.

모호한 결말은 관객들에게 판단할 몫을 챙겨준다. 노라가 집을 나간 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나름대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남편이 후회하며 마지막으로 가지는 기대이자 노라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간 말, 즉 두 사람 모두가 변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입센이 제시한 문제는 시간과 더불어 세련미를 더하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다. 인형의 집은 좁다. 그리고 인형의 집 밖에는 사람 같은 여자도 있다.



그 때 그 시절 추억이 살아숨쉬는 추억의 민속박물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어떠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요즘, 우리의 기억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추억을 만날 수 있는 민속박물관이 조용히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바로 김해시 한림면 14번 국도변에 자리잡은 추억의 민속 박물관이 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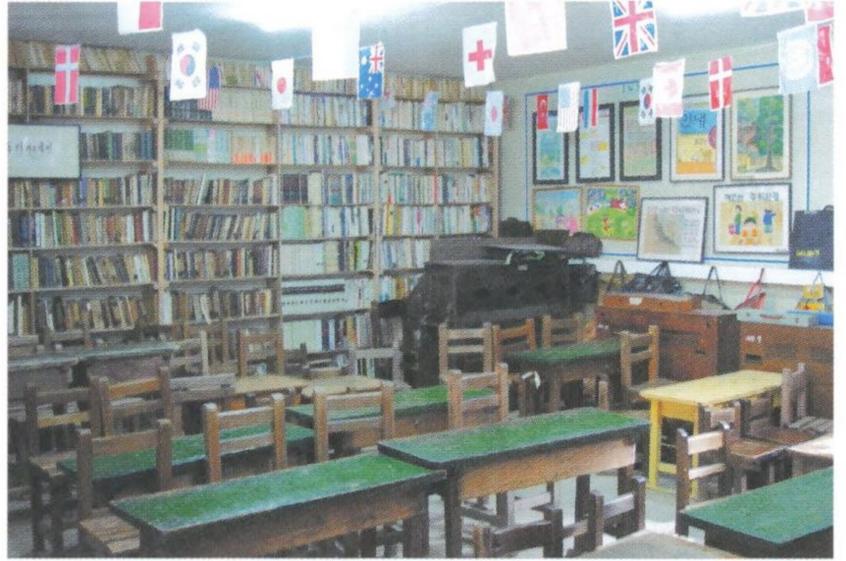
지난 3월 정식으로 문을 연 추억의 민속박물관은 관장 마상태씨가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발품을 팔아가며 수집한 각종 생활, 민속품이 전시되어 있다. 개인 박물관이긴 해도 4천여평이 넘는 넓은 공간과 2만여점이 넘는 다양한 전시물은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입구에서 힘차게 돌고 있는 물레방아 앞을 지나 옛 다듬이돌을 괴어 만든 계단을 올라서면 주 전시관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이 곳은 청동기그릇에서부터 도자기, 벼루, 물레, 베틀, 전통혼례복, 갓, 탈, 축음기, 전화기 등 각종 생활, 민속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건물천정에는 다양한 서체와 그림으로 채워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970~80년대의 교실과 사진관, 이발소 등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시켜놓은 테마전시관은 관람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옛 교실에 들어서면 삐거덕거리던 책걸상과 풍금, 옛 교과서와 교복 등이 있어 학창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갔던 옛 이발소에는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이발소 의자와 이발도구가 있고 특별한 날에만 찾곤 했던 사진관에는 당시 사진관에서 볼 수 있었던 스탠드형 사진기, 사진찍기가 전문화되지 않았던



추억의 민속박물관은 4천여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관장 마상태 씨가 30여년 동안 발품을 팔아가며 수집한 각종 생활, 민속품 2만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1970~80년대의 교실과 사진관, 이발소 등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시켜놓은 테마전시관은 관람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그 시절의 전문가용 사진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벽면에는 어린 시절 외가집에 걸려있던 가족사진을 떠오르게 하는 빛바랜 가족사진들과 옛날 영화포스터, 선거 후보 포스터 등이 걸려있다.

실내 전시관 뿐 아니라 박물관 구석구석 야외에도 많은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다. 달구지, 농기구, 디딜방아, 가마, 장독, 절구, 멧돌 등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소품 등이 마치 옛날 시골집 마당을 바라보는 듯 하다.

추억의 민속박물관에 가면 추억의 민속박물관이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학교에서 문화, 생활체험도 할 수 있다. 도예, 천연염색, 아로마 향초, 나무공예 등 직접 만들어보는 예술체험과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디딜방아찜기 등 민속놀이 체험, 떡메치기,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찌먹는 가마솥체험 등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물의 성장과정을 통해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자연과학프로그램을 신설해 보다 다양하면서도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입소문이 나면서 일주일 평균 1천여명이 추억의 민속박물관을 다녀가고 있다.

“우리 조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런 생활, 민속품이야말로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보물”이라 생각한다는 마상태 관장.

추억의 민속박물관은 건물 설계에서부터 전시물 배치까지 마상태 관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30여년간 수집하고 4년여간 박물관을 준비한 그의 열정이 박물관 곳곳에 담겨져 있다. 그의 이런 열정에 동화된 아들이 경주대학교 문화재과에 진학했다는 마상태 관장은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에 아들이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상태관장은 앞으로 박물관 내 녹차밭을 조성해 은은한 차향 속에서 또다른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전통차집과 서당으로 운영될 한옥을 조성해 우리의 전통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 여유와 문화를 즐기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추억의 민속박물관(055-345-7736, www.sligi.or.kr)



신명난 가락속에 피어난 국악사랑 풍물패 어울마당



신명난 우리가락이 좋아 함께 모인 풍물패 '어울마당'. 어울마당의 보금자리인 지하 연습실 문을 들어서면 한겨울에도 뜨거운 열기가 후끈 느껴진다. 정기강습회가 열리는 화요일, 십여명의 회원들이 둘러앉아 장단을 맞추고 있는 이 곳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국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풍물패 '어울마당'의 사랑방이다.

'어울마당'은 지난 2003년 4월 지금의 '어울마당'을 있게한 단장 김기출 씨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현재는 회원 18명이 어울마당에서 우리소리의 소중한

함을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풍물에 관심이 많았던 김기출 단장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어깨너머 배운 우리 가락을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풍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가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만 하더라도 부산농악보존회 기능보유자 故 이용식 씨를 비롯 소고춤의 명인 故 황재기 선생, 중요무형문화재 43호 수영야류 보유자 태덕수 선생, 중요무형문화재 82가호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인 태평소 명인 故 김석출 선생 등을 꼽을 수 있다.

명인을 찾아가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던 김기출 단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락의 신명을 알리기 위해 풍물패를 결성, 강습과 연주를 통해 국악사랑을 펼쳐나갔다. 지난 1990년 6월 남구청 풍물패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운봉, 이바디, 놀이새, 우리소리 등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풍물패를 결성, 활동을 꾸준히 가져왔다.

공직생활 35년을 마치면서 '어울마당'을 결성한 김기출 단장은 '어울마당' 활동에 보다 많은 기대와 열정을 갖고 있다. '어울마당' 회원들은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있는 강습회를 통해 실력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어울마당'은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강습을

위해 사물놀이 강습교본을 따로 제작할 정도로 실력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풍물에 관심을 가진 초보자들도 '어울마당'이 열고 있는 강습회를 자주 찾는다. 단장인 김기출씨가 '어울마당' 뿐 아니라 대연4동, 감만1동, 용호2동, 문현4동 자치센터 등에서 강습회를 갖고 있어 강습을 통해 우리가락의 신명에 빠진 수강생들이 사물놀이를 더 배우고 싶어 스스로 '어울마당'으로 찾아와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회원들 대부분이 40~50대 여성들이 많다보니 여느 동호회보다 유대감이 많아 서로 친밀하다”는 회장 최영자씨.

김기출 단장과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남구청 풍물패 활동을 함께 했던 최영자씨는 그런 인연으로 '어울마당' 가족이 됐다. 풍물을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을 거듭한다는 그는 퇴직 후에는 인근 폐교에 풍물학교를 개설, 우리 전통을 이어갈 청소년들에게 국악사랑을 펼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회원 장영숙 씨는 지난 2004년 봄에 '어울마당'과 인연을 맺었다. 복지회관에서 풍물강좌를 받기도 했던 그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 '어울마당'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회원에 가입했다. '어울마당'이 바로 집 근처라 시간나면 수시로 들러 연습을 한다는 그는 요즘 꿩과리 배우는 맛에 푹 빠져있다.

장영숙 씨는 언젠가는 자녀들과 함께 풍물을 배우고 싶다는 희망도 갖고 있다. 회원 정향미 씨는 김기출 단장이 풍물강습을 갖는 자치센터 수강생으로 '어울마당'과 인연을 맺었다. 같은 자치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친구들과 함께 '어울마당' 회원으로 가입한 정향미 씨는 언젠가는 풍물의 꽃이라는 상쇠 역할로 사물놀이패를 이끄는 자신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지난 10월 열렸던 '오륙도축제' 무대에 출연한 '어울마당'은 앞으로는 실력향상과 더불어 관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연주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국악의 멋과 신명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문의 : 풍물패 어울마당(782-3027)



'어울마당' 회원들은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있는 강습회를 통해 실력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열렸던 '오륙도축제' 무대에 출연한 '어울마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국악의 멋과 신명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오카리나 이야기<4>

박종근 ·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장



며칠 전 연주회에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참, 그 악기 소리가 좋은데 그 악기 이름이 뭐요?”

“네. 오카리나입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그럼요, 할아버지께서 배울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와 인연, 가깝지도 않은 경남 진주에서 오카리나를 배우기 위해 매주 내려오신다. 오카리나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고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할아버지...

한 날은 양로원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곳에 계신 할머니들이 너무 듣기 좋고 할아버지가 멋져 보인다고 감이며 떡이며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싸주시더라.

슬로우 푸드보다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고 클래식보다는 대중적인 것을 좋아하고 국악보다는 양악에 귀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

이 모두가 우리에게 ‘빨리빨리’ 문화와 조급한 우리네 정서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짐은 왜일까.

이번 시간은 앞에서 배운 것을 총망라하여 실전적인 곡에 이용하여 오카리나를 배워 보기로 하자. 우리 귀에 많이 익은 산도깨비를 불러 보기 전에

1. 곡의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든지 피아노로 한번 쳐 봄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익힌 후
2. 조표 및 박자에 유념하여 천천히 연습에 임하되 Long Tone 및 Scale을 10분씩 한 후 연습에 임하도록 한다.
3. 특히 고음부 그 중에서도 오카리나로 소화하기 힘든 F음이 지속적으로 나옴으로 F음을 낼 때 (AC)는 필히 고개를 숙여 음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고음을 지속적으로 내기 힘들다면 입술모양을 “에”모양에서 불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긴 음을 편하게 낼 수가 있다.

산 도깨비

A F C F Gm Dm C

조표와 박자에 유념하여
B♭음을 한번 짚어본후 연습하자.

점 음표는 특히 충분한
길이를 연주하자

5 F C Dm Gm C F

♯는 밴드주법을 이용하여
텅텅하게 되면 예쁜소리를 낼 수 있다.

한번 더 반복 연주후
B로 넘어가자

9 **B** Gm Dm C⁷ F Gm C⁷

충분한 길이로 하되 리듬을 살려
몸에서 묻어나는 연주를 해보자

13 B^b F Gm C⁷ F

바닷물이 밀려가듯
p 에서 *f* 까지 표현한다.

이 두마디의 8분 음표는 경쾌하며
짧게 연주한다.

'1인 1기를 배웁시다' 지상강좌를 맡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씨는 한국사회교육원 오카리나 원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출강, 글로벌 콘서트바토리 오카리나 주임교수로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카리나 창작곡으로 경기도립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산 무대 서는

김혜란 명창



경기민요 준보유자 김혜란 명창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협연자로 오랜만에 부산 무대를 찾는다.

“전국 곳곳에서 공연을 갖지만 부산공연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 공연장에서 더 신명이 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7년의 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무대인만큼 기대가 큼니다.”

2006년은 김혜란 명창에게 각별한 해이다. 올해 스승인故 안비취 명창 10주기를 맞아 임정란, 전숙희, 고주랑, 이호연 등과 (사)한국민요연구회를 설립하고 민요의 부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김혜란 명창은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느때 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한국민요연구회는 1971년故 안비취 명창이 목계월, 이은주 명창과 설립한 단체로 1979년

활동이 중단되었다. 지난해 소리꾼 3백여 명이 모여 스승들의 뜻을 이어 받아 우리 민요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재결성을 준비하여 올해 2월 법인 단체로 정식 발족했다. 6월 가진 창단 축하 공연에서는 경기민요와 전국 8도에 흠어져있는 뱃노래를 공연해 큰 호응을 받았다.

“새로 출범하는 (사)한국민요연구회는 우선 경기소리와 경기소리꾼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도 (사)한국민요연구회 활동이 시작되면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더욱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란 이사장은 앞으로 지역의 삶과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는 전국의 토속민요를 발굴하고 민요 강습을 통해 우리 민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KBS 민요대상, KBS국악대상을 수상한 김혜란 명창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함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새 동요 만들기와 서도민요 ‘배따라기’를 테마 한 소리극 ‘배따라기’ 작창, 굿판 단골네 등 다양한 무대행사를 가져왔다.

수준 높은 실내악 선사하는 실내악 전문연주단체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7명의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가 창단에서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평소 메세나 운동에 관심을 가져온 부산의 기업인 이소진 씨의 열정으로 창단된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 백재진, 신상준, 김동욱, 백사론, 문주연, 엄세희, 비올리니스트 이성호, 김은진, 김가영, 첼리스트 전명희, 유대연, 신혜정, 이명진, 콘트라베이스 박희철, 피아니스트 노경원 등 17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이다. 부산의 실력있는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는 단일팀을 구성하는 여느 실내악단과 달리 필요에 따라 소사이어티 내에 수개의 실내악 연주팀을 구성할 수 있어 한 무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준높은 실내악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1월 4일 가진 창단 연주회에서는 한무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부산대학교 교수), 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신상준(인제대학교 교수), 김동욱(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씨를 리더로 4중주, 5중주, 8중주 등 4개팀을 구성해 수준높은 4색의 무대를 가져 큰 박수를 받았다.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를 준비하며 단원들은 어느 때 보다 솔리스트로 자신의 개성을 조금씩 덜어내고 자신과 다른 음악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기쁨을 느꼈다.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는 앞으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여 연주프로그램에 따라 유연한 멤버 구성과 다양하고 폭 넓은 레퍼토리를 계속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2007년 3월 20일 두 번째 연주에 보여줄 또 다른 느낌의 실내악 선율에 음악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러시아 3大 발레단

키에프 쉘브첸코 주역들과 함께 하는 ‘백조의 호수’

12월 29일-30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키에프 쉘브첸코극장 키에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와 키에프 국립소년소녀발레단의 명작 발레 ‘백조의 호수’가 12월 29일과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막이 오른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과 함께 클래식 발레 3大 걸작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조의 호수’는 전 2막 4장의 발레로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변신하는 오데트 공주,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트 왕자, 이들을 지배하려는 악마와의 치열한 싸움으로 긴장감과 흥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동화의 서정에 푹 빠져 어린 시절을 보낸 차이코프스키가 36살 때 완성한 ‘백조의 호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인형’에 비해 장대한 짜임새와 다채로운 음악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정통 발레 무대인만큼 연말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우크라이나 키에프에 자리 잡은 키에프 쉘브첸코극장은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과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과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극장으로 꼽힌다.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Kiev Boys & Girls Ballet Company)은 1985년 러시아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갈리나 니코라에브나(Gallina Nikolaevna)와 Makarenko 국민훈장을 받은 드미트리 카이고로도브히(Dmitry Kajgorodovyh)가 키야노츠키(KYYANOCHKA)라는 이름으로 창단한 단체이다.

이들은 국제콩쿠르 및 각종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36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10개의 그랑프리과 14개의 금메달, 6개의 은메달 그리고 6개의 동메달을 받았다. 키에프가 배출한 무용수들은 대다수 키에프국립 쉘브첸코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이 발레단이 배출한 12명의 무용수들은 볼쇼이, 키로프 발레단, 런던, 비엔나, 뉴욕, 파리 등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볼쇼이 발레단의 Anastasia Stozkaya와 유럽 리듬 체조의 챔피언인 Anna Bezsonova 역시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 출신의 무용수이다.

키에프 소년소녀 발레단은 지난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한 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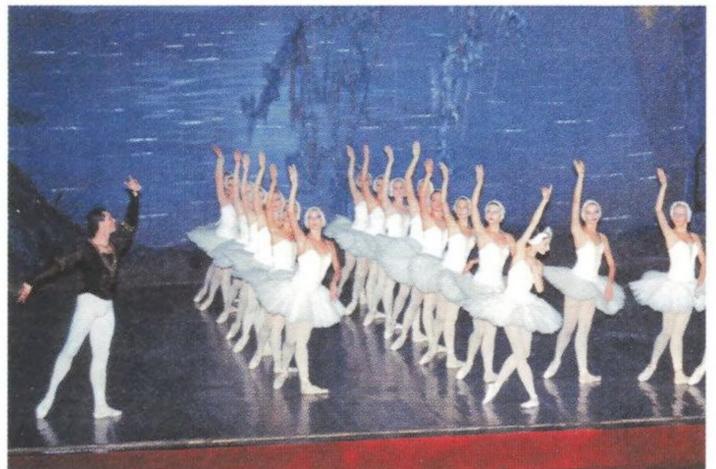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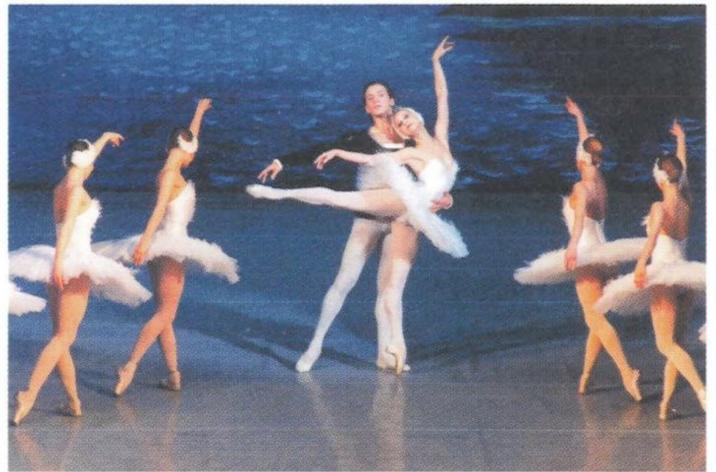
멘을 Modify 한 'CARMEN-STREET' 라는 작품을 선보여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부산공연에서는 웨브첸코의 솔리스트 나탈리 마작(Natalya Matsak)과 키에프 소년소녀발레단의 수석 솔리스트 치간코바 타티나(Tzygankova Tatyana)와 웨브첸코의 주역 솔리스트 웨르바코프 미하일(Shcherbakov Mykhaylo)이 첫 내한 무대를 갖는다.

2000년 키에프 발레학교 졸업후 웨브첸코 국립 발레단에 입단한 나탈리 마작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S. Lifar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나탈리 마작의 무용에는 아주 멋진 테크닉과 표현력 그리고 그녀만의 색깔과 음악적, 감성적인 표현이 잘 나타난다. 이번에 오데뜨역으로 부산 시민과 만나게 되는 나탈리 마작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초청공연에서 웨브첸코를 대표하는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하고 있다.

오데뜨역을 맡은 치간코바 타티나는 그동안 코르샤르, 돈키호테,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등에 출연했으며, Fouette of Artek국제발레 콩쿠르 3위, Music World국제발레 콩쿠르 및 페스티벌 2위, Youth of Ballet국제 콩쿠르 2위 등을 차지, 현재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의 수석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지그프리드역을 맡은 웨르바코프 미하일은 10세부터 발레를 시작하여 지난해 Galyzka Terpsikhora 국제콩쿠르 1위, 2004년 국제 Crystal Shoe 국제콩쿠르 2위 등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하여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웨르바코프 미하일은 그동안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수많은 발레작품에서 주역 솔리스트로 활동해 왔다.



■ 입장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30%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42),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정통코미디 십이야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난 3월 부산시립극단 제 25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진 후 거창국제연극제에서 공연되어 호평받았던 부산시립극단 '십이야'가 낭만주의 정통극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오는 12월 8일과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십이야'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남녀 두쌍의 엇갈린 사랑이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연극 '십이야'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일째에 해당되는 1월 6일을 의미하는 말로, 1601년 1월 6일 이탈리아의 오시노 공작을 환영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 궁전에서 초연된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이다.

똑같이 닮은 남녀 쌍둥이인 세바스찬과 바이올라는 배가 난파되어 서로 헤어지게 되고, 오시노 공작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오시노 공작을 사랑하게 된다. 오시노 백작의 부탁으로 올리비아 백작부인에게 사랑을 전하러 간 바이올라는 그녀를 남자로 착각한 올리비아의 사랑을 받게 되고, 바이올라의 쌍둥이 형제인 세바스찬이 나타나면서 올리비아는 바이올라로 착각한 세바스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면서 바이올라는 오시노 공작의 아내가 되고 마침내 두 쌍의 남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 원작/셰익스피어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 출연/유성주, 염지선, 김은희, 이혁우, 박찬영, 황창기, 이현주, 정행심, 이돈희, 임해련(부산시립극단 단원), 배진만, 조창주, 유재명, 김관준, 이정욱(객원배우)



■ 입장료 :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10인 이상 단체예매시 2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2006 기억속의 시간
 【法古創新 - 옛길 익혀 새로운 길 열다】

새 길 옆에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쉬운 병술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2006 기억속의 시간이 오는 12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변신을 통해 부산국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흥겨운 우리 전통 선율을 들으며 한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1부 첫 무대는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맞아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우리 비나리'를 김혜란 명창의 구수한 소리로 연다. 비나리는 원래 고사를 지낼 때 쓰는 고사문을 노래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살과 액을 풀고 신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살풀이, 액풀이, 축원덕담, 뒷풀이로 끝난다.

비나리에 이어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혜숙이 1970년 작곡가 이강덕이 가야금의 특성을 살려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한 '가야금 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1부 마지막 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와 정선희가 백제의 찬란했던 자랑스런 문화중심지 전주 '완산칠봉'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한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로 장식한다.

2부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춘석의 협연으로 김영재곡 '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태평소 협주곡'으로 연다. 경기민요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흥겨운 노래인 방아타령 가락을 변조시켜 태평소로 연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현악으로 편, 작곡하였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6년 마지막 곡은 오랜만에 부산을 찾은 경기도립국악단 사물놀이팀(조갑용·이부산·박상덕·최재학)이 이준호곡 '영남 성주풀이를 위한 창작관현악'으로 장식한다. 이번에 연주되는 성주굿은 영남지방에서 주로 정월 대보름에 불리던 것으로 노래 가사는 집터를 잡아 고르고 난 후 집을 지어 복을 부르고 액을 쫓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신명나고 다이내믹한 연주로 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다가오는 한해의 힘찬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박호성



김혜란



장혜숙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합창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온가족이 함께 하는 2006 웰컴 크리스마스 & 굿바이 모차르트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강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었다던 2006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합창 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웰컴 크리스마스 & 굿바이 모차르트'가 12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연주회의 1부는 모차르트의 미사곡 중 가장 아름답고 또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대관식 미사(Kroenungs Mass, KV 317)'가 소프라노 박미경,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김성현, 베이스 허종영 4명의 독창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협연으로 마련되어지며 연주회의 2부에서는 즐거운 축제의 크리스마스를 노래한 캐럴합창곡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연주되어진다.

모차르트가 남긴 19곡의 미사곡 중 16번째로 작곡된 '대관식 미사'는 종전의 미사곡과는 달리 대규모 악기편성을 통해 활기차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1790년 전 유럽에서 거행되었던 신성로마의 황제 레오폴트 2세의 대관식 기념미사에 사용되어졌던 곡으로 알려져있다.

대관식 미사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경성대학교 박미경 교수는 모스크바 볼쇼이 심포니체스키 오케스트라, 키예프 국립 오케스트라, 쌍뜨-베제르부르그 TV 방송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이태리 제노바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박소연은 이태리 부살라 국제콩쿠르, 디 스테파노 국제콩쿠르, 마리오 란차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테너 김성현은 이태리 Campobasso L.perosi 국립음악원, Pontinia G.verdi 시립음악원, 로마 A.I.D.M 국제아카데미를, 베이스 허종영은 고신대학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이태리 깔리 아카데미, 프레스코발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2부에서는 크리스마스 합창곡들이 다양한 제목과 모습으로 연주되는 데, 환상의 크리스마스, 아카펠라 크리스마스, 영가풍의 크리스마스, 캐럴합창모음(백현주 편곡) 등의 4가지 주제로 꾸며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청중들에게 들려준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울산 교류음악회 부산MBC 창사 47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그랜드 콘서트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사다난했던 2006년을 마무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가 오는 12월 2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캐서린 레너드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울산시립교향악단 합동연주로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에 놀라운 음악적 통찰력과 해석력으로 세계무대에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캐서린 레너드는 네덜란드 콘서트게보 콩쿠르 브리엔덴크란스 1등, 쿨렌캠프 3등 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아일랜드 대통령 매리 메컬리스 초청으로 핀란드 국민 방문시 핀란드아홀에서 연주무대를 갖기도 한 캐서린 레너드는 RET 국립심포니, 얼스터 앤 아이리시 챔버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 호주 퍼스 국제 실내악제, 런던실내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캐서린 레너드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카메라타 퍼시피카 실내악 앙상블 바이올린 수석으로 위촉되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더불어 웅장한 무대를 선사할 울산시립교향악단은 1990년 3월 창단 이후 지금까지 100여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찾아가는 연주회, 보고 듣는 영화음악회, 클래식 길라잡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 매년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교향악축제에 참가해온 울산시립교향악단은 2003년 교향악축제에서 지역 오케스트라로는 드물게 개막공연에 초청받는 등 그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캐서린 레너드의 협연으로 들려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라장조 작품 218'은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된 5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일명 '잘츠부르크 협주곡' 중 특히 뛰어난 곡으로, 전 악장에 걸쳐 발랄한 활기가 넘친다. 특히 맨 처음 나오는 주제가 마치 트럼펫 취주에 의한 행진곡을 연상시킨다해서 '군대협주곡'으로도 불려진다.

이밖에도 힘찬 주제가 인상적인 모차르트의 3막 오페라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 서곡, 스크리아빈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작품인 교향곡 제 4번 다장조 '법열의 시' 작품 54, 스페인의 민속무곡으로 동양적 느낌의 두 개의 연결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라벨의 '볼레로'가 연주된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캐서린 레너드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 크 장

2006년 겨울, 사랑과 감동의 대서사시
솔 오페라단 오페라 라보엠

4일-6일 월-수요일 오후 7:30



애절하면서도 격정적인 선율로 세계 3대 오페라 작품으로 손꼽히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으로 마련하는 솔 오페라단 2006년 무대.

- 예술총감독/이소영
- 지휘/오따비오 마리노
- 연출/방정욱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음악감독/쵸반니 마스티노
- 합창/아라미르 합창단(지휘/이성훈), KBS부산어린이합창단(지휘/김태호)
- 출연/소프라노 다리아 마제로, 소프라노 김경희, 테너 발터 보린, 테너 이철성, 바리톤 프랑코 몬트레조르, 바리톤 조현수, 노운병, 김건우 외

입장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 학생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솔 오페라단(622-552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7일 목요일 오후 7:30

치열한 경쟁에서 선발된 청소년 유망주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교향곡 중 제 1악장
호자우루/마림바 협주곡 중 제 4악장

랄로/스페인 교향곡 중 제 1악장
칼리보다/오보에 소협주곡 중 제 1, 3악장
쿠세비츠키/더블베이스 협주곡 작품 3 중 제 3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협연/장아름(바이올린 · 부산대 3년), 한효은(비올라 · 부산대 3년), 박현주(마림바 · 부산대 4년), 류아영(바이올린 · 부산예고 3년), 장영희(오보에 · 부산예고 2년), 윤민우(더블베이스 · 부산대 3년), 윤미희(마림바 · 동아대 3년), 김나영(바이올린 · 부산대 2년)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2006 난타

9일-1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한국 최초의 난버벌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에서 격찬받고 있는 난타 2006 무대.

권투시합의 난타전처럼 '마구 두드린다'는 뜻의 '난타'는 한국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렸다.

입장료 1층 S석 40,000원
2층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라이프(626-9494)

2006 송년음악회

14일 목요일 오후 7:30

2006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사)부산문화에서 마련하는 2006 송년음악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과 동안의 포크가수 김세환,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 호



오주영

신호범

소력질은 목소리의 가수 신호범을 초청, 클래식과 국악, 가요가 함께 하는 편안한 무대를 열어준다.

· 출연/바이올린 오주영, 가수 신호범, 김세환,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633-899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아듀! 2006

15일 금요일 오후 7:30



김동욱

이명진

김소형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마감하고 2006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수석지휘자 이동신 취임 후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통하여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프로그램

비제/작은 모음곡 '어린이의 놀이' 작품 22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이수인/고향의 노래

모차르트/모테트 '춤추라, 기뻐하라' 작품 165 중 제 4곡 '알렐루야'

베토벤/트리플 콘체르토 다장조 작품 56 등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민지(바이올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향악단 악장), 성정하(소프라노, 동 의대 외래교수), 양재무(바리톤, 서울예고 전임교사), 김동욱(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이명진(첼 로, 동아대학교 교수), 김소형(피아 노, 동의대학교 교수)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9)

이 솔리스트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16일 토요일 오후 7:30



데이드림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솔리스트 앙상블이 창단이후 두 번째로 마련하는 나눔 공연.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드라마 '겨울연가' 테마 음악 작곡, 연주가로 지난해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함께 일본 열도를 돌며 순회공연을 가진 데이드림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출연진/데이드림,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이 솔리스트 앙상블, 교회연합합창단, 부산색소폰콰이어, 올리

브어린이합창단

· 지휘/박종휘

· 협연/소프라노 이윤정, 소프라노 김한나, 테너 송승민, 테너 박용선, 바리톤 김중화, 베이스 김일석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이 솔리스트(010-3038-7191)

신보발매기념공연

소프라노 신영옥

2006송년&2007신년콘서트

Love Duets

17일 일요일 오후 6:00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신영옥 부산독창회.

새 음반 발매와 동시에 따뜻하고 주옥같은 사랑의 노래들을 가지고 국내 음악 팬들을 찾아오는 신영옥은 1989년 미국에서 개최된 스폰레토 페스티벌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 역을 통해 세계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다. 이듬해 3천여명이 출전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내셔널 카운슬 오디션에 출전해 뉴욕 타임즈로부터 '가장 뛰어난 우승자'라는 호평을 이끌어 낸 신영옥은 로렌 자카리 콩쿠

르, 올가 쿠세비츠키 콩쿠르 등에 우승, 세계 무대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도니젠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산들바람에게 물어보오', 오페라 '루치아 디 라 메르무어' 중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내가 신 한숨은 그대에게 닿으리'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가세요!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신혼의 밤이여' 비제/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 '라일라! 라 일라'

번스타인/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오늘 밤'

포스터/영화 '카멜롯을 찾아서' 중 삽입곡 '기도' 등 수곡

· 연주/서울클래시컬플레이어즈(지휘/박영민)

입장료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라이프(626-9494)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18일 월요일 오후 7:30



손명균

백재진

ForAD
종합광고대행사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타로그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지난날이여 안녕' '축배의 노래'

김동조/농촌의 아침 등 수곡

· 지휘/손명균(동의대학교 학점은행제 전담 교수, 양산시립관악단 수석)

· 바이올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 테너/김화정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문화(633-8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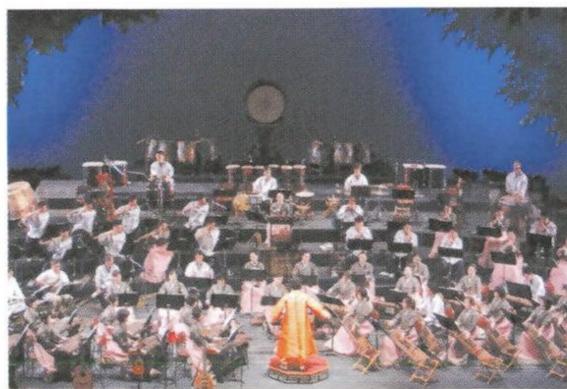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2006 기억속의 시간

〈法古創新-옛길 익혀 새로운 길 열다〉

**새 길 옆에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

19일 화요일 오후 7:30



아쉬운 병술년 한해를 돌아보며 2007년의 복을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6 송년음악회'.

경기민요 준보유자 김혜란을 비롯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춘석, 박성희, 정선희, 경기도립 국악단 악장 조갑용 외 3명의 사물놀이팀이 협연자로 출연, 부산국악애호가들에게 신명나고 다이내믹한 연주로 다가오는 한해의 힘찬 메시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이준호/새해의 소망을 담은 창작관현악 '우리비나리'

이강덕/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가야금 협주곡 1번'

백성기/창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

김영재/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태평소 협주곡
이준호/영남성주풀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 지휘/박호성(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혜란, 김점순, 김보연(이상 소리), 장혜숙(가야금), 박성희, 정선희(이상 창), 박춘석(태평소), 조갑용 · 이부산 · 박상덕 · 최재학(사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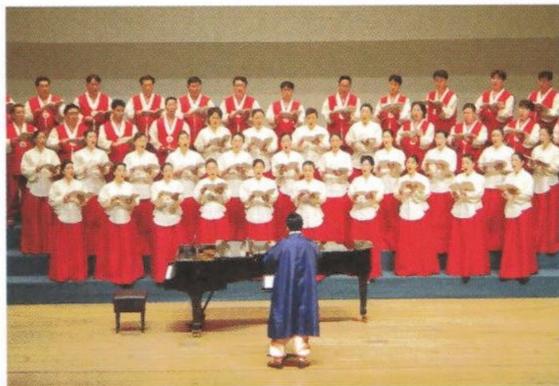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합창단 제 121회 정기연주회
온가족이 함께 하는 2006

**웰컴 크리스마스 &
굿바이 모차르트**

21일 목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보내며 부산시립합창단이 최고의 미사음악으로 꼽히는 모차르트 '대관식미사곡'으로 2006년 한해동안 열린 수많은 모차르트 기념음악회를 마감하는 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대관식 미사 KV 317-1

환상의 크리스마스/일년 중의 가장 행복한 시간, 크리스마스 노래, 왜냐하면 그것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야

아카펠라 크리스마스/성탄나무, 아름답게 장식하세요 등 수곡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소프라노 박미경,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김성현, 베이스 허종영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반주/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19회 정기연주회

**2006 송년을 위한가족
사랑음악회**

22일 금요일 오후 7:30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부산 개최로 2006년을 분주하게 보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06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송년음악회.

테너 허동권, 크레도 플룻앙상블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별히 마지막 무대에서 소년소녀합창단 가족이 함께 등장해 크리스마스캐럴을 연주한다.

프로그램

추억 I. Gloria 모음/Gloria(J. Haydn), Gloria(박지훈)

추억 II. 스캇송/Sonata, Alla Turca, Symphony(Mozart), Sonata(M. Clementi)

추억 III. 캐럴모음/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사노래 들리고, 징글벨 등 수곡

· 지휘/배정행(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객원반주/김영숙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테너 허동권, 크레도 플룻앙상블

입장료 균일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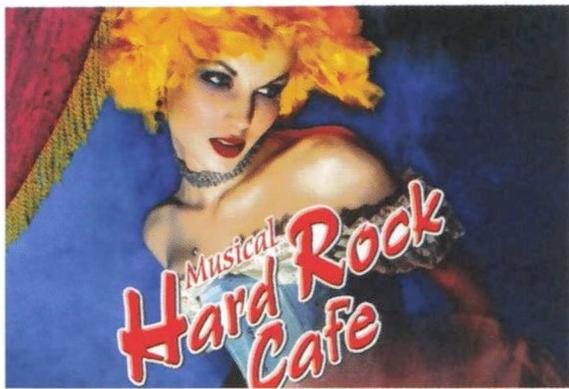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뮤지컬 하드락 카페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24일 일요일 오후 3:00, 7:00

25일 월요일 오후 2:00, 6:00

2005년 제 11회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등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프로듀서상, 안무상을 수상한 뮤지컬 '하드락 카페' 부산공연.



허구의 공간인 클럽 파라다이스와 자유분방함과 젊음, 일탈이 있는 하드락 카페를 배경으로 세 여자의 각기 다른 매력과 사랑법을 보여준다.

- 작, 연출/이원중
- 음악/장소영 · 안무/이란영
- 출연/강효성, 송용진, 문혜영, 웅산, 진수현, 최윤, 조한철 외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학생 3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레드슬리퍼(622-3496, www.mcmticket.com)

부산성악아카데미

2006 송년 애창곡의 밤

26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성악아카데미가 송년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유명 칸초네, 가곡, 뮤지컬곡과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들을 들려준다.

- 출연/박현정, 전영무, 우명화, 박은미, 송윤경, 김길수, 이은민, 윤정윤, 안상철, 이흥득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안상철(016-9302-527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6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울산 교류 음악회

부산MBC 창사 47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그랜드 콘서트

28일 목요일 오후 7:30

200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대형작품을 선곡,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을 들려준다.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캐서린 레너드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 서곡
작품 366, 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라장조 작품 218
스크리아빈/교향곡 제 4번 다장조
‘법열의 시’ 작품 54

라벨/볼레로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캐서린 레너드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러시아 3대 발레단
키예프 웨브첸코 주역들과 함께 하는
백조의 호수

29일 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5:00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과 함께 러시아 3대 극장



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크라이나 최고의 국립극장 키예프 웨브첸코극장의 국립발레단 주역과 소년소녀발레단이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 부산무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젤과 함께 클래식 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는 차이코프스키가 36살 때 완성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웨브첸코가 자랑하는 부동의 주역으로 ‘백조로 태어났다’라는 평을 받는 최고의 무용수 나탈리 마작(Natalya Matsak)이 오데트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중극장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

실내악 페스티벌

1일 금요일 오후 7:30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피아니스트 정성흠, 바이올리니스트 백사론, 양경아, 비올리스트 윤미돌, 첼리스트 이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탈 앞
(미니올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미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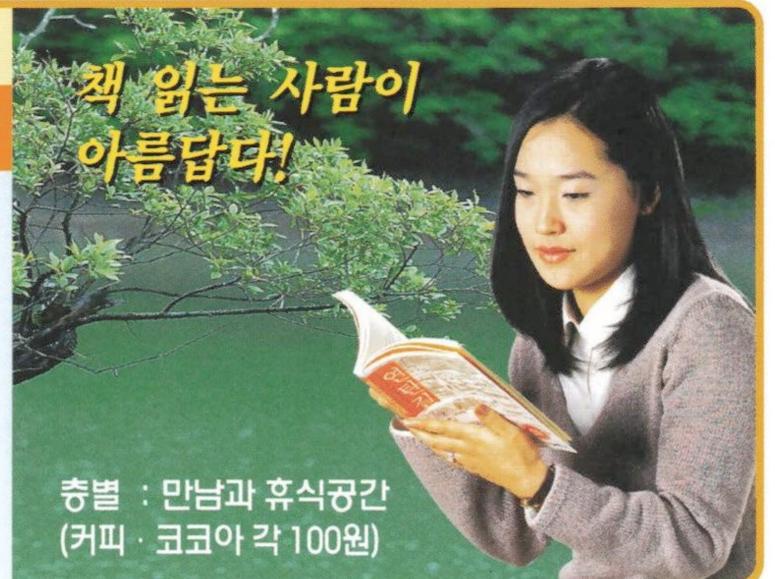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성이 들려주는 실내악 페스티벌.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를 위한 2개의 소품, 아다지오 & 알레그레토(폴카)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 2번 작품 67

쇼스타코비치/피아노5중주 사단조 작품 57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아트뱅크(011-597-6808)

한얼정악연구회 제 11회 정기공연

시조 창무극 정가의 진수와 한국인의 멋

2일 토요일 오후 7:00



시조의 대중화를 위해 '시조창무극'이란 장르를 개척해온 한얼정악연구소의 제 11회 정기공연.

시조, 다도 등 사대부의 문화를 보여주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가곡과 가사, 시조창 등 정가를 들려주고 2부에서는 돌잡이 다례를 비롯 조선시대 나들이복 한복쇼, 가야금 병창, 시조창과 학춤의 만남, 교방춤 등 '한국인의 멋'이 시조창 가락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가곡/우락 '바람은', 언락 '벽사창이'

가사/매화가, 죽지사

돌잡이 다례, 한복쇼, 가야금병창 등

· 연출/정인경(시조시인,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이수자)

· 각본/하현기 · 안무/김정원

· 구성/하송자 · 해설/박명화

· 춤/춤소리 예술단, 한얼정악창무극단

· 다도/차생원 · 반주/채수만 외

· 특별출연/부산교사시조연구회

· 출연/정인경, 이영숙, 조수연, 박수진, 정유정, 이희재, 장미, 방미연, 하송자, 박성자, 안경희, 박명화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한얼정악연구소

(632-4472, 011-870-8597)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정통코미디 십이야

8일-9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지난 3월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을 통해 부산에서 초연되어 화제를 모은 셰익스피어 마지막 희극 '십이야' 앵콜 공연.

W.셰익스피어의 희극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십이야'는 쌍둥이 남매의 닮은 외모 때문에 벌어지는 얽히고 설키는 사랑 소동극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작품이다. 심플한 무대와 귀족 의상이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 작/셰익스피어 · 연출/손기룡

· 출연/유성주(오시노 공작), 염지선(바이올라, 세자리오), 김은희(올리비아), 배진만(세바스찬), 이혁우(말볼리오), 박찬영(sir 토비), 황창기(sir 앤드류), 이현주(마리아), 정행심(페스테), 이돈희(페이비안), 임해련(발렌타인), 조창주(안토니오), 유재명(신부, 선장), 김판준, 이정욱(보안관)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10인 이상 단체예매시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제 4회 이옥희 첼로 독주회

11일 월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와 파리 에콜노르말을 졸업하고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이옥희 독주회.

이옥희는 프랑스니스 실내악 페스티벌 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드뷔시/소나타 1번

알비노니/아다지오

베토벤/소나타 제 3번

· 피아노 반주/정안선

입장료 초대

문의 이옥희(017-594-1321)

마리나 앙상블 제 8회 정기연주회

12일 화요일 오후 7:30

2000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마리나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생상/7중주 작품 65

브람스/6중주 제 1번 작품 18 등 수곡

· 출연/이상진, 우소라(이상 바이올린), 홍영선, 김상철(이상 비올라), 서송은, 김석근(이상 첼로), 윤강희(콘트라베이스),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유영욱(피아노), 백진현, 전정희, 박재영, 김유리, 백지혜(이상 호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상진(011-576-2897)

에코플룻콰이어 제 5회 정기연주회

14일 목요일 오후 7:30

플루티스트 조진학을 중심으로 2000년 결성된 에코 플룻 콰이어의 정기연주회.

에코 플룻 콰이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 플루트 페스티벌, 조진학 교수 제자 발표회, 금정케이블 방송 어린이 합창



단 연주회 등의 무대에서 아름다운 플룻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Paraphrase on
Themes from The
Nutcracker Suite

모차르트/플룻협주곡 제 1번 사장조 K.313

임금수/사랑하는 마음

슈베르트/교향곡 제 8번 나단조 D 759
'미완성교향곡'

· 협연/테너 김동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정은영(016-581-6960)

**테너 김용주
다섯 번째 독창회**

1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캄보바쇼 음악원, 이태리 아르츠 아카데미, 파가니니 아카데미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현재 한빛 오페라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주 독창회.

프로그램

도나우디/오 사랑하는 남, 아름다운 그대 모습

동요/섬집아기, 파란마음 하얀 마음

변훈/떠나가는 배

스트라우스/나 이제 떠나요, 헌정 등 수곡

· 피아노/이수연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김용주(011-560-5262)

**부산 바순 앙상블
Fagottissimo 연주회**

16일 토요일 오후 7:00



유동성 있는 소리와 폭 넓은 음역으로 풍부한 저음과 선율적 고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순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는 한국 유일의 바순 실내악단인 부산바순앙상블 'Fagottissimo(파곳티시모)'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단원 장정호를 중심으로 김기수, 김선진, 이주은, 신나리, 이충만, 윤주훈, 김소라 등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바순앙상블 'Fagottissimo'는 지난해 창단된 Artmonte 바순앙상블의 규모를 확대하여 올해 재창단된 단체이다.

프로그램

롯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Largo al Factotum'

크라이슬러/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로즈마리 등 수곡

· 협연/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공소현(피아노), 조성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조용길(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장정호(011-387-4390)

**2006 부산 버숨새 '봄비
처럼 세상을 어루만지다'**

17일 일요일 오후 6:00



2006년 시작과 함께 해맞이기념행사, 부산문화회관 지신밟기, 2006 흥과 멋 그리고 우리소리 우리몸짓, 2006 국제해변무용제, 부산시립무

용단 정기공연 '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신명난 우리 가락, 춤을 전해온 부산 버숨새에 술단이 2006년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무대 '봄비처럼 세상을 어루만지다'.

· 출연/박현호, 김한동, 김도연, 최의옥, 허태성, 김미란, 이주현, 김윤호, 정은희, 김대원, 최정민, 이형곤, 이창규, 박순호, 방명희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버숨새예술단(751-3100)



바다속 화이트 크리스마스 부산아쿠아리움 산타 빌리지

연인과 친구, 온가족의 색다른 크리스마스 파티~ 산타 빌리지

· 눈 내리는 환상의 바다

바다 속에서 새하얀 눈이 펄펄~! 그 환상적인 세계 속으로 초대할게요~

· 이색 화이트 크리스마스

산타를 만나는 바다세상, 산타 빌리지! 감동적인 화이트 X-MAS를 선물할게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테너 방현호 귀국 독창회

18일 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L.Perosi 국립 음악원, 산타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Pescara 아카데미 오페라 연주과정, Ateneo (Sulmona) 국제음악학교 등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귀국한 테너 방현호 귀국 독창회.

프로그램

칼다라/친구인 숲이여, 그대 잔인해도
김종덕/신작가곡 학 같은 여인
베르디/오페라 '루이자 밀러' 중 '해 저무는
고요한 저녁에' 등 수곡
· 특별출연/소프라노 민수연
· 피아노/이현주

입장료 초대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한울 창단 연주회

1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지령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한울 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V 282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쇼스타코비치/24개의 프렐류드 작품 34 중
15-24번 등 수곡
· 연주/고경숙, 박필은, 정은, 박선재, 장지숙, 김은주, 김혜진

입장료 초대

문의 김진희(010-9928-3733)

오데사 소년소녀합창단 내한 연주회

20일 수요일 오후 7:30

맑고 순결한 음성과 완벽한 화음으로 세계 음악 팬들을 매료시켜온 오데사 소년소녀합창단은 우크라이나 성악예술의 본산인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 창단되어 창단 10년 만인 1991년 말타국제합창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합창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프로그램

호두까기 인형, 이바나 쿠팔라, 마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의 화관, 생명의 양식(F. Frank), 아베마리아(G. Caccini), 아베마리아(F. Schubert) 화이트크리스마스(I. Berlin), 서부 우크라이나 무용음악 등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SPA엔터테인먼트(744-3588)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 제 14회 정기연주회

21일 목요일 오후 7:30

1993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창단된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은 플루트 지도는 물론 정기연주회, 부산 플루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론도
포레/파반느 작품 50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앤드슨/슬픈 탕고 등 수곡
· 협연/김소형(동의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옥영호(011-9322-1805)
이순애(019-622-5114)

장영남의 버라이어티 모놀로그

2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4일 일요일 오후 4:00, 7:30
25일 월요일 오후 3:00, 6:30



'여자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센스있는 연극',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성-남성들이 봐야 할 연극', '여과없는 性메시지-방청석에서 토크쇼를 지켜보는 현장감'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버라이어티 모놀로그 부산무대.

2001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장영남을 새주인공으로 캐스팅, 2년만에 새롭게 제작되었다.

입장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레스슬리퍼(622-3496,
www.mcmticket.com)

한국소년소녀정가단 제 3회 정기연주회 화개동 편지

26일 화요일 오후 7:00



2003년 우리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가져온 초, 중등학생들로 창단된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이 들려주는 제 3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2006년 전국정가경연대회에서 단체팀 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가곡/여창가곡 우주 우락, 계면조 환계락, 계면조 편수대엽
가사/황계사, 춘면곡
창작국악곡/화개동 편지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문금자(019-559-6119)

부산 레이다 싱어즈 제 2회 정기공연

28일 목요일 오후 7:30



2003년 7월, 창단 이후 화요음악회, 부산합창제 등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 부산레이디싱어즈는 거제전국합창대회, 휘센주부합창대회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한국민요/총각타령, 도라지, 새몽금포타령
성가곡/내죄를 속하신 주께 감사하라, 영광
을 주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 지휘/손욱 · 피아노/이현주

입장료 초대

문의 박귀옥(011-9329-6486)

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29일 금요일 오후 7:30

1999년 창단,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CBS소년소녀합창단이 뮤지컬 '마차야 서부로 가자' 수록곡 등으로 2006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 지휘/정순갑 · 피아노/이유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김경순(018-553-7855)

소극장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 기획 특집

칸사이(關西) 바셋 혼 트리오 초청연주회

3일 일요일 오후 5:00



벨기에 왕립 앙트와프음악원 동문인 밥 반데 벨데, 히데아키 이와이, 타케히로 시노하라로 구성된 '칸사이(關西) 바셋 혼 트리오'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3대의 바셋혼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제 4번 K.229, 클라리넷과 3대의 바셋혼을 위한 아다지오 K.580, 2대의 클라리넷과 3대의 바셋혼을 위한 아다지오 K.411 등 수곡
· 특별출연/카즈미 이타니, 정우영(부산시립 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클라리넷콰이어 (017-577-7850)

아르모니 플룻 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0일 일요일 오후 5:00



1996년 플루티스트 정옥경과 그의 제자로 창단된 아르모니플룻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데

헨델/할레루야

주페/시인과 농부

입장료 초대

문의 이현정(894-1050)

제 5회 하순봉 작곡발표회 노래의 밤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작곡가 하순봉의 다섯번째 작곡발표회로 하순봉이 최근 추구하는 미니멀음악에 근간을 두고 한국적 느낌과 필요에 따라 클래식과 재즈나 대중음악적 어법을 자유롭게 섞는 퓨전적 경향의 창작곡들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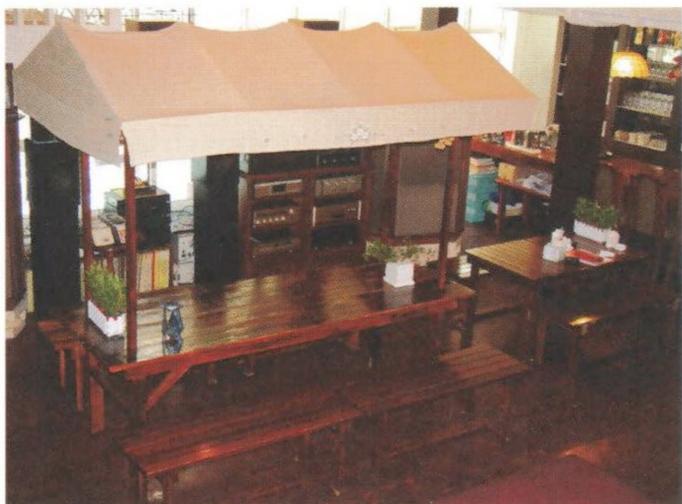
민속적이고 흥겨운 노래/Entrainment II
우울하고 슬픈 노래/Nanie(만가)

사랑의 노래/능소화 연가(이해인 시) 등 수곡

· 연주/퓨전 국악단 예타래, 소프라노 구현진, 바리톤 하병욱 외

입장료 초대

문의 하순봉(018-576-1633)



광복동 필하모니 음악감상실을 잊으셨습니까?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20명~80명)
◆ 부산문화회관 가족 및 정기회원 점심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글로벌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축하음악회

1일 금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지난 10월 열렸던 글로벌음악콩쿠르 우수 입상자들이 들려주는 축하음악회.

출연

하민지, 조삼열(계명대 2년), 김지윤(부산대 1년), 박호경, 김예지, 이정화, 송일도(부산 예고 3년), 구지윤(브니엘예고 3년), 이다정(브니엘예고 2년), 황영은, 조원범, 이수민, 채세중, 이은혜(부산예중 3년), 황고은(부산 예중 2년)

입장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콘서바토리
제 5회 정기연주회

1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학점은행제 전문음악기관인 부산콘서바토리의 음악전공자들이 들려주는 겨울밤 음악 이야기가 배수진 교수의 해설로 펼쳐진다.

· 합창지휘/김도형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콘서바토리(501-3999)

키에프 국립방송교향악단
갈라 콘서트

2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폴란드 첸스트호 바 필하모니,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에 필하모니 객원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근의 지휘로 들려주는 키에프 국립방송교향악단 갈라콘서트. 1부 협주곡, 2부 가곡과 아리아 그리고 합창 무대로 마련된다.

· 지휘/김영근

· 협연/김효연(바이올린), 박신지(바이올린), 강석은(피아노), 이솔미(소프라노), 차성실(소프라노), 정승희(소프라노)

· 특별출연/범어사합창단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김영근(011-858-9434)

부산한새해운대청소년
리코더합주단 제 7회
정기연주회

2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8년 창단 이후 매년 합숙훈련과 정기 연주회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닦아온 부산한 새해운대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타

비발디/협주곡 라장조 작품 10 제 3번

베토벤/무지컬 클룩을 위한 미뉴엣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김인옥(011-871-0412)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가톨릭센터와 부산평화방송(PBC)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 5일 부산혼양상블 연주회



· 지휘/김상한 · 특별출연/테너 전병호

■ 12일 아이네 플루트앙상블 연주회

1997년 창단 후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아이네 플루트 앙상블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플룻선율의 향연.

■ 19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연주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이 'I wish you a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들려준다.

■ 26일 신정아 피아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정아 독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제 5회 이득수 제자음악회

5일 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청라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글로벌문화예술원 평생교육원장으로 있는 성악가 이득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제자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7회 부산실내악페스티벌

5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비르투오조 앙상블, 더블리드 앙상블, 밀레니엄 콰르텟, 예술트리오, 샤론챔버앙상블, 클라리넷콰이어, 부산시향 금관5중주 등 7개 실내악단이 참여하는 실내악의 향연.



밀레니엄 콰르텟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6일 겨울로 떠나는 오보에 여행

· 출연/유종석(오보에), 안주환(혼), 김병기(피아노), 박신영(오보에), 김상철(비올라), 서송은(첼로), 이광식(바이올린), 고충진(클래식기타)

■ 13일 운아회 '모차르트 피아노 음악의 밤'

· 출연/차영아, 정소연, 김경혜, 이윤정, 차유진, 이화영선, 김정희, 이성희

■ 20일 아담스 플루트앙상블 연주회



■ 27일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아듀 2006

교사오카리나합주단 단장, 오카사랑앙상블



박은숙

고충진

창단 리더로 활동중인 박은숙과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소프라노 김복조가 함께하는 오카리나 앙상블 무대.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송년감사음악회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백선아

김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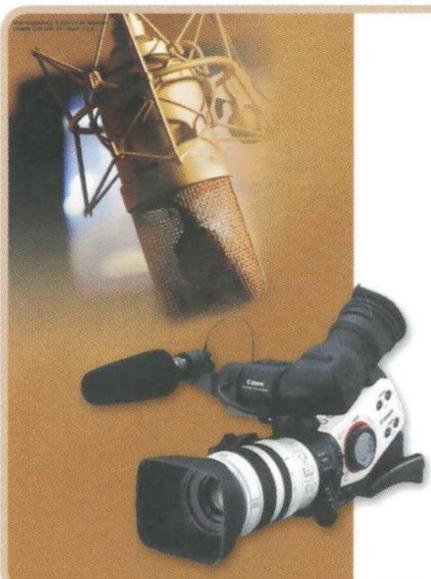
우리가곡을 비롯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등을 들려주는 아지무스오페라단 송년음악회.

· 출연/백선아, 민수연, 김성현, 박찬, 고정현, 김태형, 박윤정, 이영숙, 김희경, 엔젤중창단, 올리버소년소녀예술단

입장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청소년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1588-2528)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비디오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_ 음반 녹음 _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 (DVD, SVHS) _ 콘서트 촬영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 051-744-1150, www.vrvr.co.kr

오지 여행가 도용복의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VIII

8일 금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오지여행가 도용복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재미나는 해설로 즐기는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문의 글로벌아트홀 (505-5995)

양상블의 밤

10일 일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관악양상블 심온, 기타양상블 향유와 옥합, 오카리나합주단 아나톨레가 펼치는 다양한 양상블의 세계.

입장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소프라노 성정하와 함께하는 나의 첫 번째 음악회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의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탈리아 푸치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NOTE d'rode에서 2위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성정하와 신예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무대.

입장료 초대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2006 부산은행 송년음악회

12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은행에서 마련하는 고객을 위한 사은 음악회.

출연

이태원(뮤지컬배우), 박현정(소프라노), 엄정행, 이철성(테너), 장은익(바리톤), 박성희(판소리), 서울전통타악진흥회, 아라미르합창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은행(669-8872~3)

소프라노 이정란 귀국 독창회

12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유급연수 단원으로 2년동안 프랑스에서 유학, 올레스보아 국립음악원 등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이정란 귀국 독창회.

프로그램

헨델/시온의 딸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드뷔시/밤하늘의 별 등 수곡
· 트럼펫/주현 · 반주/안선애

입장료 무료

문의 온누리오페라단 (019-9228-0800)

테너 윤석 독창회

12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아름다운 미성을 자랑하는 테너 윤석 독창회.

비엔나 국립음대 교수 Margit Fussi의 반주로,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의 가곡모음과 우리가

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윤석(011-553-9834)

사랑나눔 음악회

1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장애인 봉사단체인 부산프렌즈 주최로 마련되는 사랑의 음악회.

· 출연/칸(정명지, 문대진, 황성학, 심정민, 정용욱), 남산초등학교 노래동무

입장료 무료

문의 문대진(011-9526-8929)

페다고지 제 4회 정기연주회

14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2000년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페다고지의 네번째 정기연주회.

기악연주와 합창, 중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사회/윤성원

· 특별출연/테너 김동국, 청아중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정숙전(016-725-6756)

피아니스트 이수진 귀국독주회

1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계명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이수진 귀국독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김유진(019-322-2167)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 제 3회 정기연주회

부산 사랑 창작곡의 밤

15일 금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을 노래한 선용, 강구중, 옥영호, 오선자의 창작시에 박봉렬, 신진수, 송계근, 김성덕, 우덕상, 김현정, 오희섭, 류지원이 곡을 부친 20여곡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출연/부산YMCA소년소녀합창단(지휘/류지원), 분포초등학교 합창단(단장/이철수), 이시윤, 손혜정(분포초 4년) 외

입장료 초대

문의 류지원(011-864-9889)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15일(금)-25일(월) 평일 오전 10:20, 11:40, 주말·공휴일 오후 2:00, 4:00 가람아트홀



동물의 특징을 음악으로 재미있게 묘사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상세한 해설과 라이브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족음악회.

· 예술감독/황진용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동의트리오의 밤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의대학교 백재진(바이올린), 이동섬(피아노), 박병훈(첼로) 교수로 결성된 동의트리오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브람스/트리오

베토벤/트리오 작품 97 제 7번 '대공'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문화(633-8990)

소프라노 김선정 독창회

17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파리시립음악원, 빌다브레 국립음악학교, 부르주 국립음악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프랑스 국제음악 성악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 2003 슈페리어 콩쿠르 2등상 등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선정 독창회.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 제 12회 정기연주회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9년 창단 후 꾸준한 연주활동을 가져온 교사오케스트라 에듀필하모니의 정기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양미향(011-9537-9303)

글로벌아트홀 개관 1주년 축하음악회

18일(월)-22일(금) 오후 8:00 (20일 공연없음, 22일 오후 8:3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개관 1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장애인돕기 자선음악회.

■ 18일 오후 8:00 성악의 밤 성악가 안민, 정진희, 김종화, 최기천,

손금희, 정대자, 이연수와 고신권사찬양단, 다윗중창단, 단비울중창단, 뽕라중창단, হল리프리, 삼일교회 어린이중창단, 장림교회 어린이중창단이 들려주는 사랑의 무대.

■ 19일 오후 8:00 부산핸드벨콰이어, 그라시아 플룻앙상블 연주회

■ 21일 오후 8:00 사론챔버앙상블 연주회, 기타와 하모니카의 조화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샤론챔버앙상블

· 출연/고충진(클래식기타), 이성규(하모니카), 권순구, 박성희(성악)

■ 22일 오후 8:30 금관 10중주, 팝스&퍼커스 연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19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음악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가져온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장은익(바리톤), 주현(트럼펫), 김규현(바이올린)

입장료 초대

문의 광영애(019-503-4576)

서울음대 부산동창회

2006 송년음악회

19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출신의 음악인들이 동문간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가져온 동문음악회 세 번째 무대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는 송년음악회로 마련된다.



임병원

오신정

· 출연/임병원, 황지원(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이선아(첼로), 서윤진, 이지선, 노경원, 구미정(피아노), 오신정(플룻), 백선아(소프라노), 김종화(바리톤), 경덕애(가야금)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임병원(011-9533-4917)

Dream Forever 제 3회 작은 음악회

22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백현주(작곡), 장미란(플룻), 김순희(마림바), 윤유미(첼로)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제자음악회.

· 출연/이수연, 안지현, 강귀옥, 유민수, 정국진, 김태영, 신재명, 허지명 외

입장료 초대

문의 백현주(017-585-2052)

글로벌콘서바토리 개원 1주년 축하음악회

26일 화요일, 28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글로빌아트홀

글로벌콘서바토리 개원 1주년을 맞아 교수와 학생 등 콘서바토리 가족들이 마련하는 축하음악회.

■ 26일 교수음악회



이수은, 박종관, 이득수, 박종근, 백충근, 고충진, 김종화, 배희영, 신현희 등 글로벌콘서바토리 교수들이 마련하는 교수음악회.

■ 28일 학생음악회

· 출연/김소연, 이선민, 박소정, 박현영, 정지원, 김규연, 이은영, 박진영, 박주언, 박재연, 이미화, 박정미 외

■ 29일 작곡가 신영순 영상음악작품 음악회
글로벌콘서바토리 학장이자 작곡가인 신영순의 영상음악작품 음악회.

입장료 무료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테너 박승녕 독창회

28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계명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하탄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뉴욕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테너 박승녕 독창회.

박승녕은 이번 무대에서 이태리 예술가곡과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박승녕(016-807-7719)

칸투스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2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구유정, 김지원, 이명진, 박명혜로 결성된 칸투스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 특별출연/이하람(플룻), 신성진, 최상미(기타)

입장료 초대

문의 구유정(011-380-1388)

김지원(011-842-1121)

소프라노 김성숙,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듀오콘서트

29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러시아 그네신음악원 마스터 클래스에서 음악수업을 한 소프라노 김성숙과 고신대학교,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 음대를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강희영이 함께하는 듀오콘서트.

입장료 균일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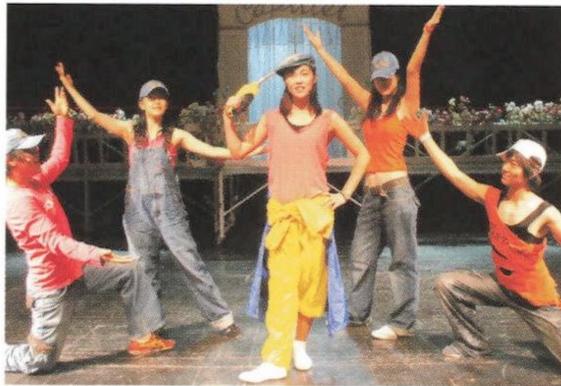
문의 김성숙(010-4334-8541)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레드 슬리퍼(622-3496)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11월 29일(수)-12월 1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줄리엣의 하녀 주리, 무덤지기 아들 하킴의 엇갈린 사랑이 신나는 힙합뮤직과 함께 펼쳐진다.

· 작/박현철 · 연출/이윤주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2006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일(금)-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비보이전용극장(구 삼성극장)

프리마돈나를 꿈꾸던 발레리나가 비보이를 사랑하고 비보이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환상적인 브레이크 댄스와 발레, 힙합무대로 선보이는 언버벌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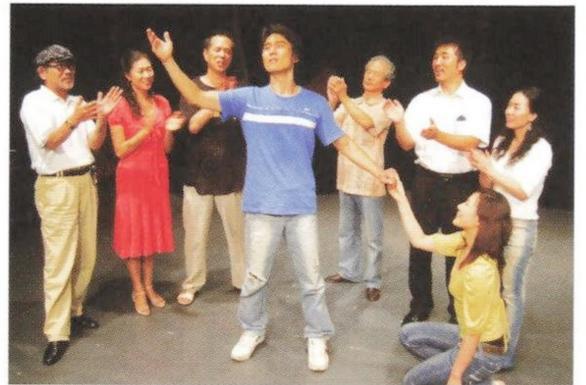
· 출연/김현문, 노진선, 한상민, 김우성, 권혁, 이지형, 김마리아, 정도영, 한상호 외

입장료 균일 3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KY WARK(442-6500)

삼류배우

4일-7일 월-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30여년 만년 조연배우를 면치 못했던 한 연극배우를 주인공으로, 상처받은 이 시대 아버지들의 가슴시린 상황을 연극배우의 현실로 표현한 작품.

· 원작/김순영 · 각색/김문홍

· 연출/전승환

· 출연/윤석이, 어주선, 권철, 박은홍, 원경식, 김진욱, 김지현, 김혜련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코엔(611-8518, 621-8518)

연극

라이방

11월 25일(토)-12월 10일(일),
22일(금)-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25일을 제외한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소시민의 우울한 삶을 경쾌하게 그려낸 웃음과 감동이 있는 연극 '라이방'.

· 작/송민호 · 연출/문삼화

· 출연/김홍택, 유성진, 신홍석, 조은경

YAMAHA

감동을 함께 만드는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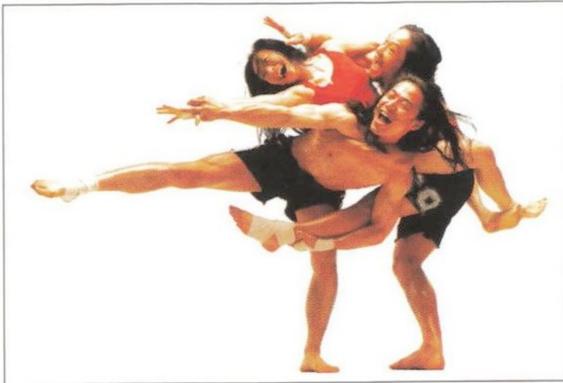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요절복통 별난 무술가족 이야기가 아찔한 아크로바트 묘기와 한국 전통무예의 화려한 액션 속에 펼쳐지는 넌버벌 퍼포먼스.

입장료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N(850-9250)

약속(원작 : 돌아서서 떠나라)

12월 9일(토)-1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
SH공간소극장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을 그린 연극 '약속'.

· 작/이만희
· 출연/김진욱, 황자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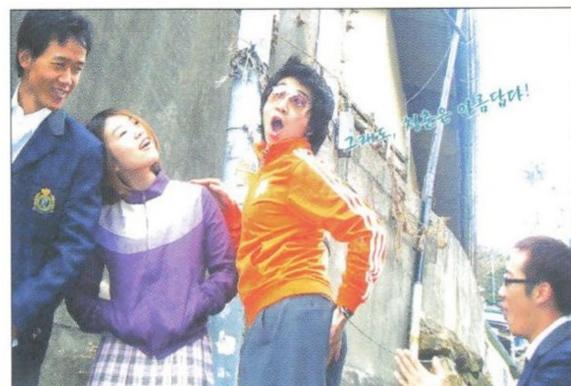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주)코엔(611-8518)

극단 누리에 제 14회 정기공연

2006 청춘예찬

21일(목)-30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암울한 청춘에 던지는 희망과 사랑의 메세지 2006 청춘예찬.

· 작/박근형 · 연출/강성우
· 출연/이혁우, 엄준필, 권영주, 김영경,
강봉금, 최성희, 최지영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창작뮤지컬 루나틱

23일 토요일 오후 7:00, 2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9:30,
25일 월요일 오후 3:00, 6:00,
26일(화)-29일(금) 오후 8:00,
3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31일 일요일 오후 3:00, 6:00,
9:30, 1/1일 월요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인 3역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변신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애 버린 파격적인 구성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창작뮤지컬.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레드 슬리퍼(622-3496)

코믹극 뉴보잉보잉

2006년 12월 23일(토)-2007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30, 7:30, 9:30(23일 오후
2:00 추가, 25일 오후 2:00, 4:30,
7:30, 1/1일 오후 3:00, 6: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바람둥이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삼각 애정 행각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폭소 코믹극.

· 번안, 연출/손남목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문의 (주)코엔(1544-3164)

라이어 부산공연

2006년 12월 23일(토)-2007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동아대학교 석당홀



간단한 상황을 무마하려 시작한 거짓말이 부풀어져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코미디극.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영 화

시네마테크부산 기획전

마르셀 카르네 & 쥘리앙 뒤비비에 회고전

11월 28일(화)-12월 14일(목)
시네마테크 부산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의 두 거장 마르셀 카르네와 쥘리앙 뒤비비에 회고전.

올드팬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나의 청춘 마리안느' '무도회의 수첩' '북호

텔' 등 추억의 영화와 대표작 15편이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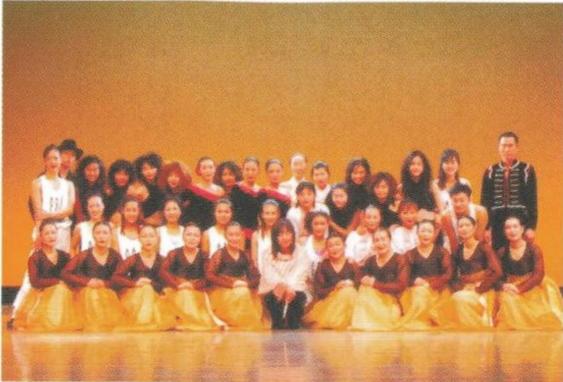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무 용 아 동 극

제 8회 춤사랑 정기공연

1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6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창단된 무용단 '춤사랑' 정기공연.

현대무용, 재즈, 발리댄스, 산조, 동래고무 등 다양한 장르의 춤사위를 선보인다.

입장료 무료

문의 심미숙(010-4564-6615)

로고현대무용단 2006 정기공연

20일 **수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동아대학교 현대무용 전공자들로 결성된 로고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새벽을 뚫고 아침을 지나...그리고 약속(안무 / 지영경 · 출연/지영경, 윤경호 외)

Let's find the shoes!(안무/이상미 · 출연/윤기나, 윤진경, 손영일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상미(010-9868-0420)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월 30일(목)-12월 3일(일) **평일**
 오전 10:20, 11:40, 주말 오후 1:00,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7일(목)-10일(일) **평일** 오전 10:20, 11:40, 주말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즐거운 캐럴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 극본, 연출/조일영

입장료 균일 1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교마마법사 해리

1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7일(목)-10일(일) **평일** 오전 10:20, 11:40, 주말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신기한 마술 퍼포먼스와 특수효과, 탈인형, 막대인형 등 다양한 볼거리로 재미를 더하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대공연장



나무인형 피노키오가 시련을 이겨내고 착한 아이가 되기까지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입장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문의 국민뮤지컬컴퍼니(02-322-7117)

캐릭터뮤지컬 통과 제리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통과 제리가 펼치는 한바탕 소동을 통해 친구간의 우정을 이야기한 캐릭터 뮤지컬.

· 각본/김성수 · 연출/이민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한울(1544-1718)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9일-30일 **평일** 오전 10:00(단체관람), **토요일** 오후 1:00, **일요일** 오후 3:00(17일 공연없음)
 너른소극장

시골로 오게된 도시아이 기호와 인형친구 피노키오가 함께 떠나는 환상여행.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7,000원

문의 문화기획 좋은사람(861-4654)



자연+자생+자아 Oil on canvas 80×60cm 2006



강 복 근 초 대 전

2006. 11. 28 (화) ~ 12. 17 (일)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센터 3층

문의 : 갤러리 예가 (T.624-0933)

www.yehga.co.kr/한글도메인:갤러리에가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14일-15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40,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22일 금요일 오후 10:30, 11:40,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25일 월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동심의 세계를,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환상의 세계를 선사하는 가족뮤지컬 '호두까기인형'.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연기획 퍼보트(904-0825)

메리~ 메리~ 포핀!

15일(금), 21일(목)-22일(금) 오전 10:20, 11:20, 24일(일)-25일(월) 오후 2:00, 4:00(평일은 단체관람)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유모 마법사의 말썹꾸러기 남매 길들이기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가족 뮤지컬.

입장료 균일 15,000원(예매시 10,000원)

문의 인형극단 까치(625-2117)

황금똥을 누는 아이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의 잘못된 먹거리 문화를 바로 잡아주는 창작 뮤지컬.

· 원작/홍은경
· 대본, 연출/홍보선
· 출연/박태경, 서문경, 석경화, 유진영, 김근호, 조민서, 서진욱, 최태진

입장료 균일 12,000원(예매시 10,000원)

문의 가람뮤지컬(557-4277)

미운오리새끼, 망치와 덩치

22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25일 월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와 쥐와 고양이와 쫓고 쫓기는 유쾌한 소동극 '망치와 덩치' 등 두 작품이 상연된다.

입장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콘서트

신승훈 콘서트

2일 토요일 오후 7:30, 3일 일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7577-567)

추가열 부산콘서트

15일 금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공연기획 작은평화(761-3076)

산올림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22일 금요일 오후 8:00, 23일 토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양희은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24일 일요일 오후 7:30, 25일 월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웃찾사 '오 개그코리아 크리스마스쇼'

25일 월요일 오후 3:00,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7577-567)

SG워너비 크리스마스 in Busan

25일 월요일 오후 6: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특설 에어돔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7577-567)

이은미 콘서트

25일 월요일 오후 3:00, 7:00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DJ D.O.C 콘서트

29일 금요일 오후 8:00 KBS 부산홀

입장료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스탠딩석 66,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7577-567)

윤도현밴드 부산콘서트 YB New Year's Greetings

29일 금요일 오후 8:00, 30일 토요일 오후 7:00, 31일 일요일 오후 10: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2006 김장훈 부산공연

30일 토요일 오후 7:00, 31일
일요일 오후 7:00, 11: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특설 에어돔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31일 오후 11:30
공연 R석 88,000원 · S석 77,000
원 · A석 66,000원, 부산시립예술
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CT(622-3496)

이승철 2006 아듀 콘서트

31일 일요일 오후 6:00, 10:00
KBS 부산홀

입장료 VIP 80,000원 · R석 70,000원

S석 60,000원 · A석 50,000원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10% 할인)

문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7577-567)

행 사

2006 부산건축문화제

11월 30(목)-12월 4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국제적 교류를 통한 부산지역 도시건축문
화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2006 부산건축문
화제.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888-4757)

부산국제여성회 크리스마스 자선바자

2일 토요일 오전 11:00
부산 노보텔엠버사더호텔

문의 김애리자(011-878-0783)

제 56회 시올림 시낭송회

1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종미, 노준옥, 박재도, 서화
성, 신진, 이선희, 이희철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런던카니발

2006년 12월 20일(수)-2007년
2월 20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일반 15,000원 · 중학생 12,000원
초등학생(어린이 포함) 10,000원

문의 런던카니발(740-3415,
www.londoncarnival.co.kr)

전 시

木·金·土·火 야외조각전

11월 20일(월)-12월 10일(일)
기장군청 전시장 및 야외광장

문의 조민길(019-419-6487)

김명식展

11월 24일(금)-12월 9일(일)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강복근 초대전

11월 28일(화)-12월 17일(일)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김형득 제 14회 조각전

12월 1일(금)-12월 15일(금)

문의 갤러리 새김터(623-5729)

(사)부산시각디자인협회전

12월 5일(화)-12월 9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1전시실

문의 (사)부산시각디자인협회
(805-8002, 011-862-8011)

효원도예가회 기획전

12월 5일(화)-12월 10일(일)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5-9500)

심상윤 다양한 수채화 기 법展

12월 11일(월)-12월 16일(토)
부산광역시청 제 3전시실

문의 심상윤(010-5530-0550)

최동렬 기획초대전

12월 12일(화)-12월 24일(일)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재불한국작가전 인간의 고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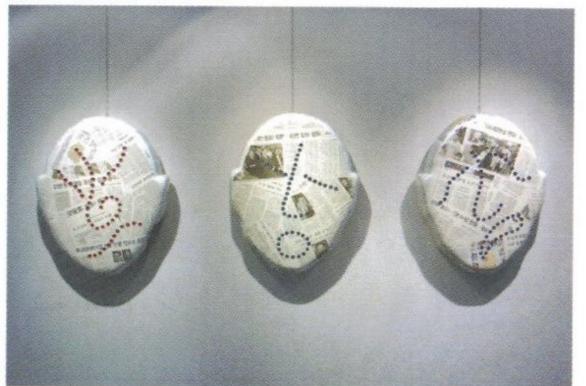
2006년 12월 16일(토)-2007년
2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참여작가/김성수, 안종대, 전강욱, 한명옥,
한순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김문수 개인전

12월 19일(화)-12월 24일(일)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5-9500)

인도현대미술전

2006년 12월 22일(금)-2007년
2월 19일(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Recommended Performance in December

Sol Opera Company 'La Boheme'

4th(Mon)-6th(Wed)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Sol Opera Company presents a pathetic and fierce melody, Puccini's La Boheme which is the one of greatest three operas in the world.

- Chief artistic Director/So-young, Lee
- Conductor/Ottavio Marino
- Director/Jeong-wook, Bang
- Orchestra/Busan Symphony Orchestra
- Music director/Giovanni Mastino

Ticket : VIP 150,000Won • R 100,000Won • S 80,000Won
A 50,000Won • B 30,000Won • Student 10,000Won

For More detail : 622-5529

2006 Nanta

9th(Sat) 4:00, 7:00p.m. 10th(Sun) 3:00, 6: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The first korean non-verbal performance, Nanta is describing what is happening in the kitchen comically. It's based on the typical rhythm used in Samulnori(Korean traditional percussions).

Ticket : S 40,000Won • A 30,000Won

For More detail : 626-9494

Jump

9th(Sat)-10th(Sun) 3:00, 7:00p.m Busan Citizen Center Ma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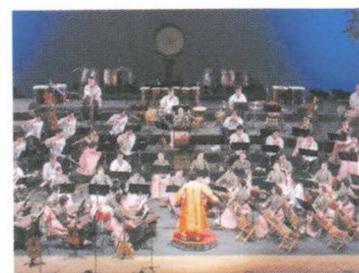
Jump, the non-verbal performance, tells about an eccentric family who brags about their amazing martial art skills. It will makes the audience laugh totally. Dizzy acrobatic feats and splendid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are performs in splendid actions.

Ticket : First floor 40.000won • Second floor 30.000won

For More detail : 850-9250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Year-End Concert 2006 Time in Memory

19th(Tue)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Looking back on this year, it presents a year-end concert with affection and gives audience energetic message of New year with dynamic performance.

- Conductor/Ho-seong, Park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 607-6110

Busan City Chorus, The 121th Subscription Performance Welcome Christmas & Good-bye Mozart

21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We had Many concerts which commemorate the 250th anniversary of Mozart's birth this year. Busan City Chorus gives the 'Coronation' Mass which surpasses all the other Masses.

Program

Mozart/Kroenungs-Messe KV 317

It's a Wonderful Christmas/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 Christmas Song, Because It's Christmas etc.

- Conductor: Kang-Kyu, Kim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 607-6126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26th Subscription Concert '2006 Farewell' The 47th Anniversary of Busan MBC 'Grand Concert'

28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This concert with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chooses great works and gives magnificent sound of orchestra.

Program

W.A.Mozart/Overture to 'Idomeneo re di Creta' K.366

W.A.Mozart/Violin Concerto No.4 in D Major K.218 etc.

- Conductor/Alexander Anissimov(Principal Conductor)
- Soloist/Catherine Leonard(Violinist)
- Orchestra/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 607-6101~4

Swan Lake with Pricipals Ballet Dancers of Kiev Shevchenko & Kiev Boys and girls ballet Company

29th(Fri) 7:30p.m. 30th(Sat) 5: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The national theater, Kiev Shevchenko which has a highest reputation and a long history. It is called one of three Russian theaters, Bol'shoi Theater of Moscow, Marinsky Theater of St. Petersburg.

- Composer/Tchaikovsky • Choreographer /Valery P. Kovutun

Ticket : R 50,000Won • S 30,000Won • A 20,000Won

B 10,000Won

For More detail : 607-6070, 607-6042

소품(小品, piece)의 세계2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기타음악의 거장 '소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영국의 건반음악을 주도하였던 버지널 음악에서 소품의 생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된다. 이 시기에 발간된 주요한 문헌으로 소품에 관한 최초의 컬렉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핏츠윌리엄 버지널 곡집(Fitzwilliam virginal book) : 대부분의 버지널리스트의 작품이 망라된 대규모의 수집곡집으로 297곡의 버지널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나의 귀부인 네벨스 곡집(My lady Nevells book) : 윌리엄 버드의 버지널곡 42곡이 포함된 곡집.

*벤자민 코지의 버지널 곡집(Benjamin Cosy's virginal book) : 불 · 기번즈 · 커즌 등의 98곡에 달하는 버지널곡 컬렉션.

*윌 포스터의 버지널 곡집(Will Forster's virginal book) : 주로 윌리엄 버드의 버지널곡 수록.

이들 문헌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버지널에 관한 정보를 오늘에 전하는 곡집은 '핏츠윌리엄 버지널 곡집'이다. 여기엔 130곡의 무곡, 수많은 가곡의 편곡, 마드리갈, 환상곡, 전주곡, 변주곡 등 매우 다양한 버지널 소품들이 원곡 또는 편곡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시대에 활동한 윌리엄 버드, 존 불, 올란도 기번즈 등의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의 영국음악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첼발로가 등장하면서 버지널의 입지가 축소되자 이번엔 다수의 작곡가들이 첼발로를 위한 소품들을 쓰게 된다. 시대는 바로크로 옮겨지고 프랑스의 쿠프랭, 라모, 다캥, 이탈리아의 스카를라티, 독일의 바흐, 헨델, 에마누엘 바흐 등이 첼발로를 위한 뛰어난 소품들을 썼다. 16세기에 이어서 18세기에 와서도 소품은 주로 건반악기를 위해 쓰는 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전통은 고전기와 로맨틱 시대까지 계승되기에 이른다.

고전파의 모차르트는 수편의 환상곡과 몇 곡의 춤곡을 남겼고, 베토벤은 피아노를 위한 소품으로 바가텔을,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를 발표했으며, 기타 음악의 거장 소르는 예술성 짙은 기타를 위한 20개의 연습곡을, 영국의 피아노 음악 작곡가 필드는 녹턴을 창시하고 30곡의 녹턴을 써서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편 쇼팽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슈베르트는 즉흥곡, 악흥의 순간, 독일무곡을 써서 이 시대 소품의 선구적 작품을 예시하였다. 그 뒤를 잇는 많은 로맨티스트들도 대단한 개성을 지니는 소품, 이른바 '개성적 소품(Character Piece)'를 발표한다.

베를린 필 자체 시리즈 Im Takt Der Zeit(시대의 흐름 속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의 역사를 담은 자체 제작 시리즈 'Im Takt der Zeit(시대의 흐름 속으로)'. 1913년 알프레드 헤르츠가 지휘한 파르지팔 관현악 하이라이트에서 2002년 니콜라스 아르농쿠르의 바흐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전체를 대표하는 13명의 거장과 베를린 필이 함께한 최고의 명연을 담은 음반으로, 대부분 음반으로서는 최초로 발매되어 그 가치를 더한다.(12타이틀)

베토벤:교향곡 9번 '합창' (지휘/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1963년 10월 15일 녹음)



1963년 10월 15일 2차 대전 중 공습으로 파괴되었다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재건축된 베를린 필의 본거지인 필하모니칼의 재개관 기념 콘서트가 열렸던 날이다. 이날 콘서트에서 연주되었던 카라얀의 합창 교향곡은 그동안 모노로 불법 녹취되었던 해적음반이 나돌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스테레오로 녹음된 음원이 최초로 음반화되었다.

당시 카라얀의 총애를 받던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 베테랑 알토 지글린데 바그너, 로시니 테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루이지 알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의 베테랑 바리톤 오토 비너의 화려한 독창진이 눈길을 끈다.

말러:교향곡 6번 '비극적' (지휘/사이먼 래틀, 1987년 11월 14일-15일 녹음)



1987년 11월 버밍엄 심포니를 영국 최정상급의 악단으로 끌어올리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사이먼 래틀이 베를린 필과 첫 만남을 가졌던 역사적인 콘서트 실황이다. 이 때 연주했던 말러 교향곡 6번의 대성공으로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베를린 필의 초대를 받게되었고, 마침내 아바도의 뒤를 이어서 이 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른다.

기존 EMI를 통해 발매되었던 같은 작품의 음반보다 2년 앞서서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다 빠른 템포와 라이브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과 뜨거운 열기를 함께 담은 래틀 최고의 말러 연주, 2악장과 3악장의 배치를 맞바꾼 점도 특기사항이다.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온라인 음반 사이트인 일본타워와 HMV 양쪽 모두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몰이 중이다.

쇼스타코비치:교향곡 15번, 하이든: 교향곡 82번 '곰'

(지휘/쿠르트 잔데링, 1997년 6월 9일, 1999년 3월 16일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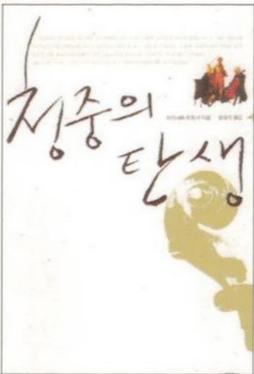
거장 쿠르트 잔데링과 베를린 필의 흔치 않은 만남을 수록한 음반. 거장이 가장 사랑했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인 15번을 수록하였다. 거장은 이 작품을 두 번 레코딩했을 뿐만 아니라 실연에서도 1997년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와의 연주, 1999년 이 음반에 수록된 베를린 필과의 연주, 같은 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역시 베를린 필과 연주했을 정도로 이 작품을 아꼈다. 므라빈스키와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그 못지않게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에 정통했던 잔데링의 역량이 노년의 원숙함과 어우러져 감동의 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하이든의 '곰' 교향곡 역시 거장이 즐겨 연주했던 작품으로 요즘 접하기 힘든 묵직한 빅밴드 스타일의 연주가 색다른 향취를 불러일으킨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청중의 탄생

와타나베 히로시 지음, 윤대석 옮김 | 강 | 279p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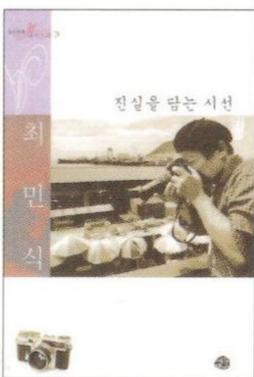


클래식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감상문화, 조용한 객석에서 심혈을 기울여 고전적인 명곡을 듣는 청중들이 있는 연주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이든이 시끄러운 청중들에게 '질려버렸다'는 유명한 일화,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 가사를 들을 수 없는 탓에 가사가 인쇄된 종이를 나누어주어야만 했던 일, '개를 데리고 입장하지 마시오' 같은 문구가 붙은 연주회장,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었던 18세기 연주회장 풍경, 연주자를 향해 열렬한 환호성을 보내는 여성 팬 등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 부르주아 계급이 연주회를 떠받치는 층에 가담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청중들은 '오락'적인 음악과 '진지한' 음악을 분리해내고, 점차 '진지한' 음악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청중은 근대적 족쇄에서 풀려나와 자유롭게 음악을 향유하는 쪽으로 변모했다. 앞으로 청중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다.

진실을 담는 시선, 최민식

최민식 글, 사진 | 예문 | 218p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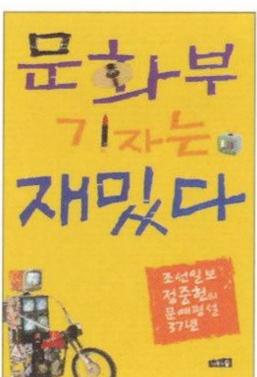
디지털 카메라 혹은 촬영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저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세상. 포토샵을 비롯해 어설픈 사진을 근사하게 보정해주는 프로그램마저 흔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일상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 분의 사진을 보면 그 생각은 곧 달라진다. 한 장의 사진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토록 강하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니, 역시 사진을 찍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사진작가 최민식. 1928년에 태어난 이 원로 작가가 아침마다 들고 나서는 카메라가방은 웬만한 젊은이도 어깨에 걸치기 힘들만큼 무겁다. 그런 가방을 메고 그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피사체를 찾아내고 사진을 찍는다.

이 책은 출판사 예문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장인들의 자서전을 통해 그 분야의 내밀한 모습과 한국 현대사의 변화상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시리즈 '우리시대 마이스터' 중 한 권이다. 한국 사진예술의 1세대로서 리얼리즘 사진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최민식.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쉬지 않고 담아온 그의 사진은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문화부 기자는 재밌다

정중헌 지음 | 나무와숲 | 528p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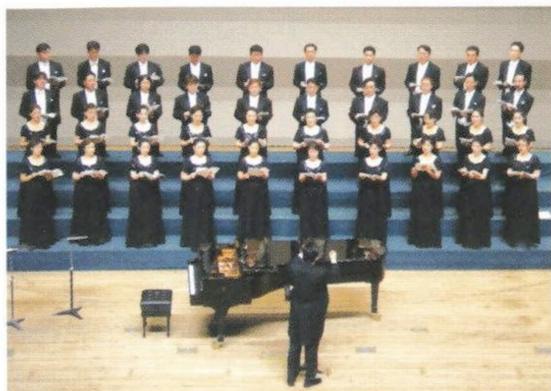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일들이 더 중요하게 인정받고 있다. 그 분야의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큰 비중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문화이다. 조선일보 정중헌 논설위원이 지난 37년간 몸담았던 언론 일선을 떠나면서 그동안의 취재 활동과 기자로서의 소회를 엮은 책 '문화부 기자는 재밌다'를 펼쳐보자.

문화부 기자는 할 일도 많다. 시사회를 통해 새로 나온 영화를 보고, 연극과 뮤지컬과 전시회를 리뷰하고, 대중문화의 스타들을 만나고, 창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재미있었다는 소회를 먼저 털어 놓고 싶어서 책제목도 그렇게 정했다. 물론 독자와 취재원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설도 듣고 곤욕을 치른 일도 많다. 저자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현대문화사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저자가 만난 사람과 문화의 현장을 책으로 읽어보자.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시립합창단 함부르크 한인회 초청 독일 4개 도시 공연

11. 21(화) ~ 11. 29(수) 함부르크, 바트제게베르그, 쿠스합벤, 하르부르그



부산시립합창단이 독일 함부르크 한인회 초청으로 독일 4개 도시 순회공연을 갖는다.

간호사 파독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행사에 초청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은 11월 21일 김강규 수석지휘자와 전 단원들이 독일로 출국, 29일까지 함부르크와 주변도시 바트제게베르그, 쿠스합벤, 하르부르그에서 5회 공연을 가지게 된다.

함부르크시는 지난해 함부르크 개항 축하 페스티벌 '한국의 날'을 기념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축하공연단으로 초청받아 함부르크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어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은 모차르트 레퀴엠을 비롯 강강술래, 뱃노래, 농부가, 새타령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곡, 23일부터 4일간 뉴 함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New Philharmonie Hamburg)와 합동으로 4회의 공연을, 마지막 날인 27일 함부르크 한국 교민을 위한 7080 특별공연을 펼친다.

- 일시 및 장소 - 2006. 11. 23(목) 쿠스합벤시 리코라이 교회 공연홀(700석)
- 2006. 11. 24(금) 하르부르그시 요한네스 교회 공연홀(700석)
- 2006. 11. 25(토) 함부르크시 함부르크 브람스홀(1,000석)
- 2006. 11. 26(일) 바트제게베르그시 마리엔 교회 공연홀(800석)
- 2006. 11. 27(월) 함부르크 대학 안나홀(500석)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인을 위한 송년 공연 개최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이 12월 13일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한적인 부산의 특수학교 학생들을 초청, 사랑을 나누는 장애인을 위한 송년 특별공연을 갖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애인을 위한 송년 공연을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은 한여름 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여름마당춤관 <男 콩쥐 vs 팔쥐>를 새롭게 재구성, 장애인들과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부산문화회관 2006 청소년들을 위한 시립예술단 특별공연 인기

고3 수험생 등 8,500여명 관람



부산문화회관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무대 예술에 대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립예술단 특별공연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시준비로 공연장을 찾을 수 없었던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 접수를 시작한 10월 18일 일부 공연일정은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붐볐다.

2006년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은 11월 22일 시립교향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관현악단, 극단, 합창, 무용단이 9회 공연을 펼치고 8,500여명의 청소년들이 부산시립예술단과 만날 예정이다.

공연일정 및 참가학교

- 교향악단 - 11.22(수) 10:30 대극장 예문여고, 주례여고, 남산고, 부산여고
- 11.23(목) 10:30 대극장 낙동고
- 11.24(금) 10:30 대극장 동아고, 분포고
- 극단 - 12.6(수) 11:00 중극장 문현여고, 성모여고
- 12.7(목) 11:00 중극장 경원고, 금성고, 해운대여고
- 12.8(금) 11:00 중극장 신도고, 금정고, 동고
- 국악관현악단 - 12.12(화) 10:30 중극장 분포여고, 경남여고, 동고
- 무용단 - 12.12(화) 10:30 대극장 동여고, 대명여고, 화명고, 지산고
- 합창단 - 12.14(목) 10:30 대극장 대저고, 상당중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 051)507-3000 • Fax : 051)507-3001 • 홈페이지 : www.busanmc.or.kr

정선희 춘향가 완창을 보면서

권기룡 ·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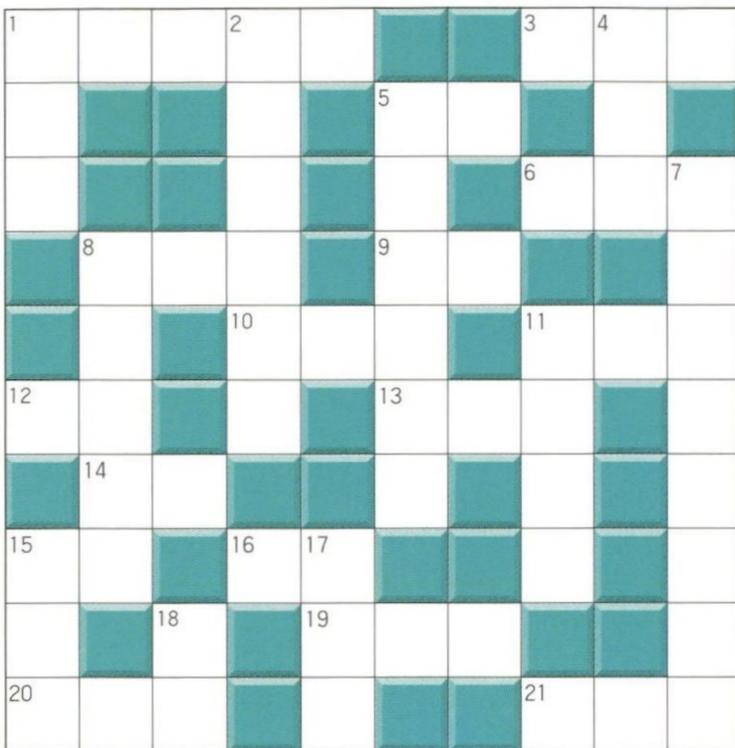
저는 오늘 황홀한 저녁을 보내었습니다. 네 시간 동안 마치 여시에게라도 홀린 듯 정신을 잃고 있다가 지금은 집에 돌아와 책상머리에 앉았지만 아직도 두어 시간 전의 분위기와 감흥(感興)은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정정렬제 정선희 춘향가가 가져다 준 감동 때문입니다. 판소리가 유럽에서 공연되었을 때, 우리 말도 전혀 모르는 파란 눈의 양인(洋人)들이 대여섯 시간의 완창(完唱) 후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판소리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소리 수궁가 전편을 시디로 들은 적은 있어도 실제 공연을 보지 못한 저는 오늘 저녁 '정선희 춘향가' 공연은 꼭 참관하고 싶었습니다. 교실에서 판소리 춘향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판소리 공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자적 양심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또한 이번이 아니면 부산에서 판소리 완창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백여 명 남짓한 관객들이 추임새로 화답하며 극중에 몰입하는 분위기는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달랑 부채 하나 들고 나온 한 명의 소리꾼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관객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판소리가 아니고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동선(動線)도 없이 거의 제자리에서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창과 아니리와 발림만으로 감동을 주는 이러한 극적인 음악장르가 우리 판소리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42개 대목으로 이루어진 '정선희 춘향가'에 재미와 감동을 주는 요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상상속의 춘향과 쪽머리를 한 창자(唱者)가 빚어내는 이미지의 유사성, 네 시간에 걸친 기나긴 창과 아니리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천재적 전문성, 해산(解産)이라도 하는 듯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열창, 구수하고 재미있고 정감어린 남도(南道) 사투리, 편지와 한시를 읽는 장면에서의 아름다운 시창, 진양조에서 자진모리에까지 이르는 절묘하게 완급이 배합된 음악성, 슬프고 심각한 장면에서 조차 시시때때로 불거져 나오는 해학과 풍자, 풍부한 언어유희, 만남과 이별과 재회와 행복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극적 전개, 당시 사회상과 시대적 아픔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신랄한 현실풍자,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통쾌함, 우리나라 최고 고수인 '김청만'의 현란한 장단과 추임새 등 수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정선희 춘향가>의 매력을 한층 더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장가', '어사또와 옥중 춘향의 상봉' 대목에서 춘향이 토해내는 절규, 그리고 유언에 묻어나는 일편단심 사랑은 바로 춘향 정신의 결정체이며 감동의 요체입니다.

정정렬, 김여란, 최승희, 정선희로 이어지는 정정렬 바디 <춘향가>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인 기교와 충실한 이면 그리기로 더욱 계승 발전되고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음악세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가로문제

- 12월 29일,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키에프국립발레단 솔리스트와 키에프국립소년소녀발레단의 무대로 선보이는 발레의 명작.
-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산유화 등 짙은 향토성을 전통적인 서정으로 노래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
- '아아 슬프다'는 뜻의 옛 감탄사.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소년기에서 어른이 되는 과도기. 신체의 성장에 따라 2차 성징(性徵)이 나타나며 생식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
- 스페인의 국기(國旗). 사람이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우는 투기.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지명. 일제 강점기말부터 골동품거리가 형성되었다.
- 중요무형문화재 97호. 흰 치마 저고리에 흰 수건을 들고 추는 춤으로, 정중동(靜中動)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춤.
- '보고있으면 훈훈해진다'라는 뜻으로, 못생겼지만 정이 가는 남자를 일컫는 신조어.

13. 쌀로 빚어서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낸 우리나라 전통주.
14. 송상현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장군. 초량동에 장군의 동상이 서 있다.
15. 흙으로 만든 그릇.
16. 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선수의 허점을 틈타 다음 루로 달려가는 일.
19. 고래와 비슷하며, 머리가 좋고 수중 음향의 발신과 수신에 잘 발달되어 있어 서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다.
20. 악곡이 끝나기 직전에 독주자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해 삽입한 화려하고 장식적인 부분.
21.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다수 작곡한 노르웨이 작곡가. 대표곡으로 '페르귄트'가 있다.

세로문제

1.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로 편입시킨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한국인 아티스트. 지난 1월 미국에서 타계.
2.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발레음악.
4. 1970년대 외화로 방영되어 화제가 된 드라마로, 초인적인 힘을 지닌 여자 바이오닉 인간의 활약을 그린 작품.
5. 6·25 전쟁이 한창이던 강원도 동막골에 모인 낙오한 국군과 인민군, 연합군이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린 박광현 감독의 영화.
7.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이브 앤슬러가 여성들과의 내밀한 인터뷰를 통해 쓴 내용을 극화한 모노드라마로, 12월 2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올려진다.
8.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 인현왕후를 폐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맞아들인 숙종의 마음을 바로잡아 보려고 지은 것으로, 후에 종손인 김춘택이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11.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를 산 음악가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역할로 묘사되면서 '열등감을 지닌 제 2인자'를 뜻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5.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 '미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18. 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부드러운 찻잎 또는 그것을 우려낸 물.
19.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사슴.

지난호 정답

장	한	나	십	이	야	영
국	풍	장	누	헤	젤	
환	갑	생	상	스	계	
수	상		임	인	당	수
곡		황	진	이	삼	
에			사		훈	불
쿠	데	타	불	국	사	천
우		이			여	의
스	타	산	지	석	우	포
	패	닉		유	언	비
				어		

- **큰집 식사권**
이경화(해운대구 우 1동) 노현용(연제구 거제 1동) 윤정미(금정구 구서 1동) 박미정(부산진구 부암3동) 김사라(연제구 거제동)
- **산마루골터(구 돈방불패)**
박경일(동래구 칠산동) 최세정(해운대구 우동) 김경은(남구 대연5동) 홍선정(부산진구 연지동) 변혜주(해운대구 우1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김대은(서구 서대신동1가) 성영순(동래구 칠산동) 형정민(동래구 온천3동) 이민정(사하구 당리동) 안정연(금정구 구서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이상길(사상구 덕포동) 우태순(부산진구 양정2동) 최미나(해운대구 좌2동) 노준호(양산시 북정동) 신지유(동구 초량3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을 속으로 떠난 11월 테마여행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무척산 관광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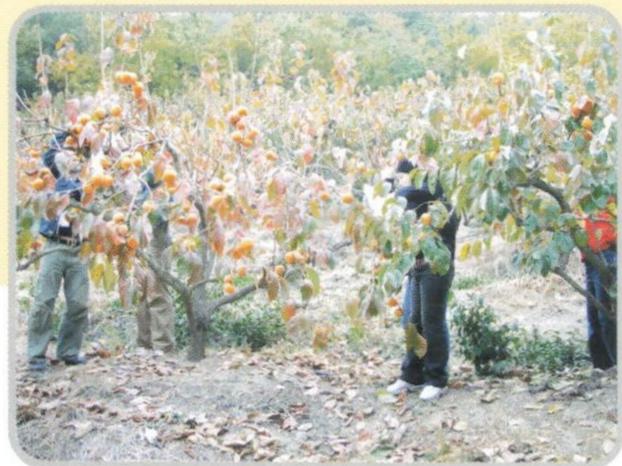
가을빛 완연한 11월의 테마 여행지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과 무척산.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 건문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 기대를 안고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지 한 시간 남짓, 진례에 도착한 일행들은 처음 만나는 신비로운 공간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흙(Clay)과 건축(Architecture), 김해(Gimhae)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행을 마중 나온 송준규 전시기획팀장과 미술관을 둘러보았다. 평범해보는 화장실의 세면기나 변기 등 위생도기들이 세계적인 작가들의 손을 거쳐 재미있는 미술작품으로 탄생된 전시공간들은 일행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었다.

전시장을 둘러본 후 미술관 메인홀에서 시립교향악단 이상진, 홍영진, 우소라 등 단원 6명이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어린이 참가자를 배려한 동요 아기염소를 비롯해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예스터데이... 등 탁월한 선곡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연주의 하이라이트는 11월에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연주한 재즈, 소울, 왈츠 풍의 생일축하곡. 단원들과 정기회원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며 교감한 그 모습 또한 이날 미술관과 어우러지는 훌륭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연주회 후 김해 무척산 관광농원으로 향했다.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팜스테이 마을에서 떡메치기와 단감따기 체험을 하며 오후 일정을 보낸 회원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가을의 추억을 만들었다.

(테마협찬/파란여행)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월 5일(금) 대나무 산책 및 굴구워먹기

사천 비봉내 팜스테이로 떠나는 겨울여행.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1:00 비봉 팜스테이 굴구워 먹기
12:00 중식
13:00 대나무 숲 산책
14:00 고추따기
15:00 비봉내 팜스테이 출발
(※ 체험비 10,000원)



▶ 2월 9일(금) 밀양 평리마을 전통체험

밀양 표충사와 평리 팜스테이 마을을 함께 둘러보는 겨울여행.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밀양 표충사 도착 및 관람
11:30 밀양 표충사 출발
12:00 밀양 평리마을 도착 및 중식
13:00 전통 먹거리 만들기 연날리기 및 짚풀공예
15:30 밀양 평리마을 출발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2월 당첨자

▶ 12월 8일(금) 우포늪 철새탐조 및 장승(숫대)만들기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변애선(사하구 괴정4동)
강혜경(중구 부평동2가)
김영아(사상구 과법동)
최경자(해운대구 좌동)
남문희(영도구 동삼동1가)
임문숙(남구 용당동)
이경자(연제구 거제동)
김송지(부산진구 부전동)
문남진(부산진구 개금2동)
모영철(수영구 광안4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이경화(해운대구 우1동)
백옥자(부산진구 개금3동)
박진규(동래구 사직동)
하윤자(서구 동대신동2가)
정말용(양산시 웅상읍)
이유희(영도구 봉래동)
배휘(사하구 구평동)
금재경(중구 부평동)
이상금(수영구 남천2동)
김경란(연제구 거제 3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7

신년음악회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바이올린
임지은



소프라노
박정원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특별출연 : 육군 제53사단 군악대,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군악대

2007. 1. 5(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AD
(주)포에드(부산광역시)

- 연주곡목
 - 모차르트 -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서곡 작품384
 - 생상 - 교향시 '죽음의 무도' 사단조 작품40
 - 주페 - '경기병' 서곡
 - 구노 -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외 수곡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ulture.busan.kr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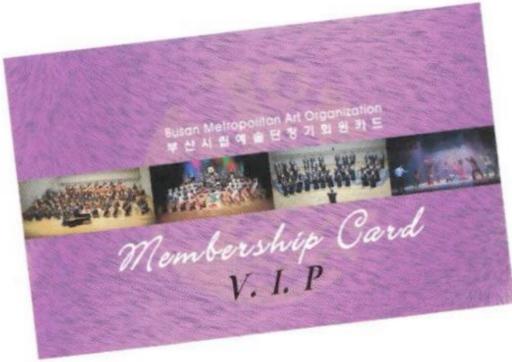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금 정/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해운대/ 해운대악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 금요일 오후 7시(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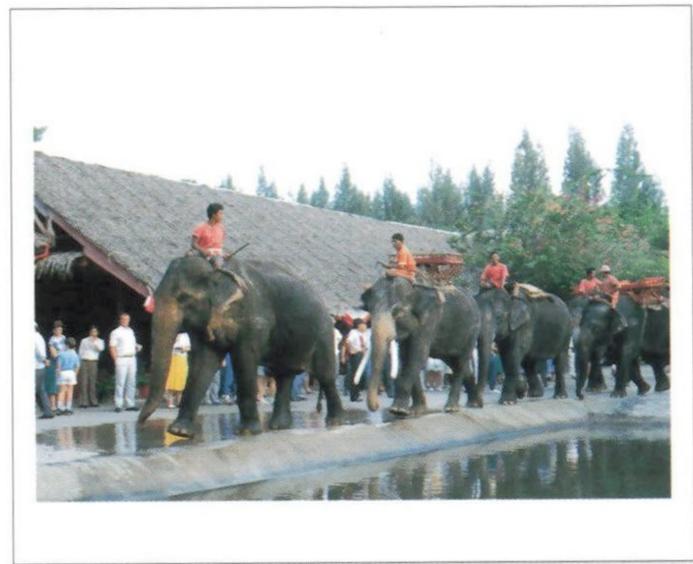
방콕 / 파타야

출발일자별 10명 한정
 방콕/파타야 5일 ₩479,000

특전 항공, 각종TAX, 기사,가이드TIP, 특급호텔3박, 알카자쇼, 미니시암, 수끼, 씨푸드, 코끼리트래킹, 전통안마 1시간

화요일 출발상품 20:00 출발 / 07:30 도착(3박5일)

목, 토요일 출발상품 09:00 출발 / 18:30 도착(3박4일)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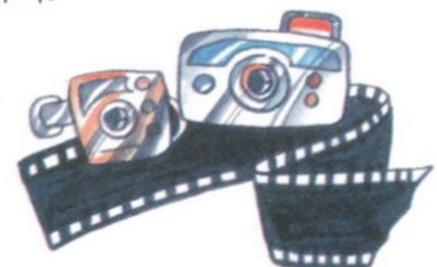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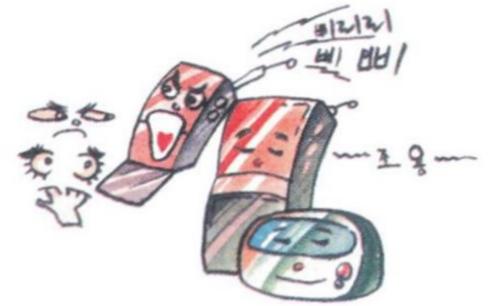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암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12월 31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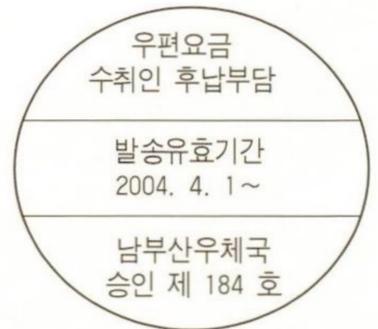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초대 담당자 앞

-



부산시립합창단 Busan City Chorus **송년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06

Welcome

크리스마스 &

Goodbye **모차르트**



지휘
김강규



소프라노
박미경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김성현



베이스
허종영

2006. 12. 21(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B석 5,000원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및 시내 주요 예매처, www.bsculture.busan.kr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러시아 3大 발레단

키예프 쉐브첸코 - Kiev Shevchenko

주역들과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

Swan Lake

연말연시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무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작 '백조의 호수'



출연 : 키예프소년소녀발레단, 키예프국립발레단 솔리스트

2006. 12. 29(금) 오후 7:30 ▶ 12. 30(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부산일보사

■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주) 피엠지 코리아

■ 입장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30%할인)

■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부산은행 티켓365, 부산은행 전지점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42),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